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정서 및 환경적 요인 측정 척도 개발 연구

책임 연구자 : 김동민

공동 연구자 : 강태훈

박현진

조영미

이정협

이지혜

조영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40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정서 및 환경적 요인 측정 척도 개발 연구

인 쇄 : 2022년 12월

발 행 : 2022년 12월

발 행 인 : 윤희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86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ISBN 978-89-8234-903-4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매년 5만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의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적 상황과 성장욕구를 초기에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개입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용 심리정서와 환경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개인별 심리·환경 특성과 서비스 욕구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정서 및 환경적 요인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정책·법규를 비롯하여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스크리닝 척도에 대한 국내외 자료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통해 기존 척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집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범주별 문항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문항 확정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문항을 선정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문항별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였습니다.


신뢰도·타당도 검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환경적 위기 수준을 평정할 수 있는 ‘심리정서·환경 척도’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파악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립역량 척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과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척도 개발에 힘써주신 본원 관계자와 책임연구자 김동민 교수님과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신 모든 연구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심리정서·환경 척도, 자립역량 척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및 활용매뉴얼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희식 

초 록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3~5만여 명이며, 현재 14만 6천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학교라는 사회의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위협이 되는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학교를 떠났지만,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도 있고, 학업과는 다른 길을 가는 청소년도 있다. 청소년이 어떤 길을 가든 사회는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노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리고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 경험과 환경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도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위기뿐만 아니라 부모, 또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기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발달과정 중에 있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을 환경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심리·정서·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이하 FGD)을 하였다. 실무자들은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가 청소년의 심리적·환경적 특성의 부정적 측면만을 측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 척도를 상담 훈련을 받지 못한 실무자가 능숙하게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구나 기존 척도의 문항 진술에는 민감한 청소년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 도구는 청소년이 자기 보고하는 방식으로 평정하는 것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장 실무자들의 이런 요구를 고려하여 총 96문항의 예비척도를 구성한 후, 실무자의 자문을 거쳐 9~12세용 척도와 13~24세용 척도의 예비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13~24세용 예비척도의 세부 영역은 성격적 강점(자존감, 낙관성, 성실성), 우울·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 반항·품행, 자살·자해, 중독,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그리고 유능감(학업 효능감, 진로정보활동, 대인관계 효능감)이었다. 9~12세용 예비척도의 세부 영역은 13~24세용과 동일하나, 자살·자해, 진로정보활동 영역은 포함하지 않았다.

확정된 예비조사용 척도를 서울의 초등학교 1개교 93명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나의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4 미만이거나 두 요인에 있어서 교차 부하량이 .1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의 성격에 비추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문항은 요인 부하량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조사를 위한 문항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반면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환경 영역의 문항 중 부정적인 내용이면서 의미 중복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13~24세용에서 78개 문항과 9~12세용에서 38개 문항이 본조사용 척도 문항으로 선택되었다.

본조사용 척도를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9~12세 70명, 13~24세 140명)과 초·중·고교 재학생(초등학생 60명, 중고생 178명)에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조사용 9~12세용 척도와 13~24세용 척도 모두에서 세부 내용별 신뢰도는 .7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과 잠재요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 모두 좋은 또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리고 각 모형에서 문항들은 모두 잠재요인에 적절히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용 척도 문항 중 어떤 것도 제거하지 않고 최종 척도 문항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본조사 척도의 문항 중 적절하지 않은 또는 모호한 진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였다. 또한 세부 내용 영역별 문항 수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래관계 1문항, 지역사회 환경 2문항을 추가 하였고, 기타 요인의 두 문항은 부모-자녀 관계 영역의 세 문항과 합쳐 가정환경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그 밖에 신체적 건강을 묻는 문항은 이 척도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정보는 접수 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를 통해)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요인 4문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9~12세용 척도의 문항과 13~24세용 척도의 문항이 최종 척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에서 성격적 강점과 유능감 영역은 (1)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 (2)서비스의 효과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3)한 번에 실시하는 척도의 문항 수를 줄여서 청소년과 실무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떼어내어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척도의 명칭을 ‘자립역량척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의 명칭을 ‘심리정서·환경 척도’라고 하였다. ‘자립역량척도’는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리정서·환경 척도’는 센터 방문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는 실무자가 청소년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기록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먼저 자신의 정보를 제시하고, 이후 실무자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는 청소년이 자기 보고할 수 있게 하되, 서비스 설계에 필요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에 포함된 정보 영역은 청소년의 가족상황,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 학교를 그만둔 이유 및 이후의 계획, 현재의 어려움,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그리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이다. 센터의 실무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을 토대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립역량 척도'의 결과와 함께 청소년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두 척도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요구 파악과 서비스 설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두 척도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를 사용하여 축적되는 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의 울타리를 떠나서도 건강하게 성장과 발달을 해 나갈 수 있게 조력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3
 - 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정책 환경 분석 3
 - 나.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정서·행동 스크리닝 척도(가칭) 방향 설정 3
 - 다.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정서·행동 스크리닝 척도(가칭) 구안 4

II. 이론적 배경 | 5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위기 스크리닝 척도 현황 5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5
 - 나. 아동·청소년 대상 위기스크리닝 척도 현황 11
-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9
 - 가. 성격적 강점 19
 - 나. 정서 및 행동 문제 21
 - 다.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유능감 23

III. 연구방법 | 25

- 1. 실무자 요구조사 25
 - 가. 조사대상 25
 - 나. 조사방법 25
 - 다. 측정도구 26
 - 라. 분석방법 27
- 2. 실무자 요구조사 분석결과 27
 - 가. 조사목적 27
 - 나. 분석결과 27
 - 다. 시사점 39
- 3. 예비조사 40
 - 가. 조사대상 40
 - 나. 조사방법 40
 - 다. 측정도구 40

4. 예비조사 분석결과	54
가.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조사 척도 분석결과	54
나. 9~12세 청소년용 예비조사 척도 분석결과	72
5. 본조사	85
가. 조사대상	85
나. 조사방법	85
다. 분석방법	85
6. 본조사 분석결과	86
가. 본조사용 심리정서·환경 척도(13세~24세용) 분석 결과	86
나. 본조사용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 분석 결과	108
다. 최종 문항 선정: 13세 이상 청소년용	121
라. 최종 문항 선정: 9~12세 청소년용	125
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	127

V. 연구의 요약 및 논의 | 128

참고문헌 | 132

부록 | 136

1. (심리정서·환경) 13세 이상 청소년용 심리정서·환경 척도	137
2. (성격강점 자립역량) 13세 이상 청소년용 자립역량 척도	140
3. (심리정서·환경) 9~12세 청소년용 심리정서·환경 척도	142
4. (성격강점 자립역량) 9~12세 청소년용 자립역량 척도	145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147

Abstract | 154

표 목차

<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혁	7
<표 2>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11
<표 3>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측정영역 및 문항 구성	13
<표 4> 실무자 요구조사 참여자	25
<표 5> 실무자 요구조사 구분 및 내용	26
<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28
<표 7>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및 욕구	29
<표 8> 활용하고 있는 척도 현황 및 개선 사항	31
<표 9>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정도 및 현황	33
<표 10> 새로운 척도의 방향성	35
<표 1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접수면접지의 필요성 여부	37
<표 12> 기타 어려움	38
<표 13>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척도(안)	41
<표 14> 9~12세 청소년용 예비척도	45
<표 15> 예비척도에 대한 서면자문 내용	47
<표 16>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척도	49
<표 17> 9~12세 청소년용 예비척도	52
<표 18> 성별 빈도	54
<표 19>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 빈도	55
<표 20> 문항별 기술통계	55
<표 21> 세부영역별 신뢰도	59
<표 22> 중독 영역 문항 제거시 신뢰도	60
<표 23> 중독 영역 문항간 상관계수	60
<표 24> 또래 관계 영역 문항 제거시 신뢰도	61
<표 25> 또래 관계 영역 문항간 상관계수	61
<표 26> 성격강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62
<표 27> 성격강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62
<표 28> 심리정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63
<표 29> 심리정서 영역의 탐색적 요인분석	63
<표 30> 환경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65
<표 31> 환경영역의 탐색적 요인분석	66

<표 32> 유능감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66
<표 33> 유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67
<표 34> 자립역량 척도(13~24세용) 본조사 문항	68
<표 35> 심리정서·환경 척도(13~24세용) 본조사 문항	71
<표 36> 성별 빈도	73
<표 37> 문항별 기술통계	73
<표 38> 세부영역별 신뢰도	75
<표 39> 낙관성 영역 문항 제거시 신뢰도	76
<표 40> 낙관성 영역 문항간 상관계수	76
<표 41> 또래 관계 영역 문항 제거시 신뢰도	77
<표 42> 또래관계 영역 문항간 상관계수	77
<표 43> 성격적 강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77
<표 44> 성격적 강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78
<표 45> 심리정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78
<표 46> 심리정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79
<표 47> ‘환경’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80
<표 48> ‘환경’의 탐색적 요인분석	80
<표 49> 유능감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81
<표 50> ‘유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81
<표 51> 자립역량 척도(9~12세용) 본조사 문항	82
<표 52> 심리정서·환경 특성 척도(9~12세용) 본조사 문항	84
<표 53> 성별 및 소속 빈도	86
<표 54> 문항별 빈도(%)	87
<표 55> 문항 평균 및 변별도	94
<표 56> 세부영역별 신뢰도	99
<표 57> ‘성격적 강점’ 모형 적합도	100
<표 58> ‘성격적 강점’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	101
<표 59> ‘심리정서’ 모형 적합도	102
<표 60> ‘심리정서’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102
<표 61> ‘자립역량’ 모형 적합도	103
<표 62> ‘자립역량’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104
<표 63> 소속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105
<표 64> 세부 영역별 위험군 비율	108

<표 65> 성별 및 소속 빈도	108
<표 66> 문항별 빈도(%)	109
<표 67> 문항 평균 및 변별도	112
<표 68> 세부 내용 영역별 신뢰도	114
<표 69> ‘성격적강점’ 모형 적합도	115
<표 70> ‘성격적강점’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116
<표 71> ‘심리정서’ 모형 적합도	117
<표 72> ‘심리정서’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117
<표 73> ‘유능감’ 모형 적합도	118
<표 74> ‘유능감’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119
<표 75> 소속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119
<표 76> 세부 내용 영역별 위험군 비율	121
<표 77> 심리정서·환경 척도(13~24세용) 최종 문항	122
<표 78> 자립역량 척도(13~24세용) 최종 문항	124
<표 79>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 최종 문항	125
<표 80> 자립역량 척도(9~12세용) 최종 문항	127

그림 목차 |

[그림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	8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9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10
[그림 4] 성격적 강점 요인분석 모형	100
[그림 5] ‘심리정서’분석 모형	101
[그림 6] ‘유능감’분석 모형	103
[그림 7] ‘성격적 강점’ 요인분석 모형	115
[그림 8] 심리정서 요인분석 모형	116
[그림 9] 유능감 요인분석 모형	118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입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과거에는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하였으나, 2015년 학교 밖 청소년법 시행과 함께 포괄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노기호, 2017).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교육·자립·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체계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최근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2021.3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즉, 초중고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3-5만여 명이며, 현재 14만 6천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사회의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위협이 되는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이탈이 곧 청소년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학업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현재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약 80%에 이른다(여성가족부, 2021). 그러나 다른 한 편, 학업 외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약 20% 정도가 된다. 여기에는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 등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 청소년도 있지만,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

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다양한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질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게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해 있을 수 있는 심리적, 환경적 위험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보호요인(또는 강점)을 찾아내는 것일 수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강점)이 발견되면, 위험요인이 가진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보호요인(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런 노력은 특정한 학교 밖 청소년이 정상적인 발달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이미 이탈했을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 복귀하게 하는 주요 사건(critical event)으로 기능할 것이다(Bowlby, 1988).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강점)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2016년 개정된 위기스크리닝 척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실시되고 있다(김동민, 안지영, 금창민, 김민지, 2016). 이 척도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빠르게 선별하여 시의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 완화와 강점 강화를 통해 정상적인 발달경로를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 척도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이 척도는 다양한 위험요인, 문제행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즉, 강점)을 찾아내지는 못한다. 이 척도의 개발 목적이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짧은 시간 내에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강점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이 척도의 타당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적 판단 능력에 달려 있다. 즉 이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청소년과의 면접 및 기타 기록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훈련 수준 및 전문적 판단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평정을 청소년이 하게 될 경우,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많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 척도를 청소년이 직접 평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실무자가 이 척도를 타

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스스로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실무자가 면접과 충분한 숙고를 한 후 평정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청소년에게 평정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나 청소년의 위기와 강점을 타당하게 평가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위기 스크리닝 척도가 갖는 제한을 극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때까지의 이행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설계에 함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척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척도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위험요인 및 취약성요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강점, 자산, 역량, 그리고 서비스 요구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인과 관련한 심리·환경 특성과 서비스 욕구 및 필요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을 설계하고, 효율적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과제

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정책 환경 분석

학교 밖 청소년 현황(특성, 욕구 등), 정책 및 법규, 스크리닝 척도(위기, 진로, 자립 등) 관련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진로·자립·진로와 관련한 국내외 스크리닝 척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적합한 위기 스크리닝 척도의 문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정서·행동 스크리닝 척도(가칭) 방향 설정

학교 밖 청소년 척도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용 중인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한계점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의 필요성 및 방향성, 측정영역의 구체화,

문항 구성의 적절성(진술형식, 채점 체계 등), 활용지침 등과 관련한 실무자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실무자,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정서·행동 위기스크리닝 척도(가칭) 구안

정책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개별·환경적 특성과 서비스 욕구·필요 도출을 위해 기존 척도를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대신할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장 실무자가 이 척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척도 활용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새로 개발될 척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욕구를 영역별(위기, 심리, 자립, 진로 등)로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척도의 활용을 통해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청소년안전망’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한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위기 스크리닝 척도 현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1) 학교 밖 청소년 정의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학령기 청소년이 공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간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어 왔다(김희진, 백혜정, 2020). 학업중단, 중도탈락,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학업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외에도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 별도의 과정을 통해 학업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백혜정 등, 2015).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밖 청소년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가능해졌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이지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현재 통용되고 있다(박근수, 김민, 2016).

‘학교 밖 청소년법’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즉,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초·중등과정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업은 지속하되 단지 국가가 규정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백혜정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청소년정책은 그 개념 및 정의에 따라 크게 광의적 범주와 협의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정책 및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안전과 보호, 노동, 비행 및 범죄, 추진체계 등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1).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함께 연계·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허민숙, 2020). 한편, 다양한 부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범정부적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은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밖 청소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청소년 기본법」의 제49조(청소년복지의향상)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년 학교 밖 청소년법의 제정 이후 2015년에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99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정·설치되었다. 2021년에는 전국 220개소(시·도 센터 16개소, 시·군·구 센터 204개소)에서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여성가족부, 2022). 서비스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 9. 20. 접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방안으로서 1-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 경찰서, 법무부(검찰청 포함),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1-② 교육청의 미취학·장기결석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학교밖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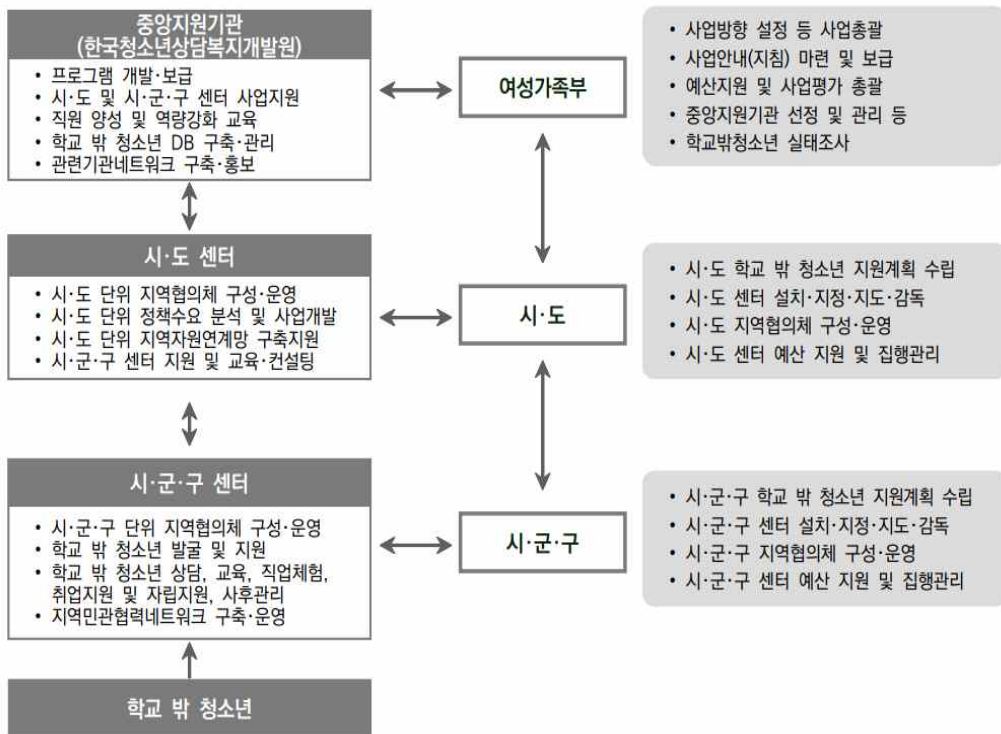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로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상담 등 관리 강화, 1-③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하여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정보 및 상담 연계 강화, 2.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서 2-①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 시행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2-②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 2-③ 전용공간 마련,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2-④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3.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혁

연도	추진내용
2007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201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후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공동, 2013. 11.)
201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5. 28.)
201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5. 29.)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2015. 5. 12.) · 전국 19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6	·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6. 6. 14.)
2017	·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 기관 ‘내일이룸학교’ 운영(구 취업사관학교)
2018	· 전국 206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9	· 전국 214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9. 11. 21.)
2020	· 전국 2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2021	·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 3. 23.)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가능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출처: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전반의 사업 방향 설정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사업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총괄, 중앙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도 및 시·군·구 센터 사업지원, 직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학교 밖 청소년 DB 구축·관리,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 센터의 경우 시·도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정책수요 분석 및 사업개발, 지역자원연계망 구축지원, 센터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센터의 경우 시·군·구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 및 자립지원·사후관리 지원, 지역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다.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 청소년사업안내. p.554.

[그림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2015. 8. 27)」을

토대로 학교, 경찰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연계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연계하고 있다. ‘서비스 안내-서비스 연계 동의-연계 의뢰 대상기관 선정-연계·의뢰-조치 결과 통보’를 거쳐 연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법(21. 9. 24)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 절차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의뢰절차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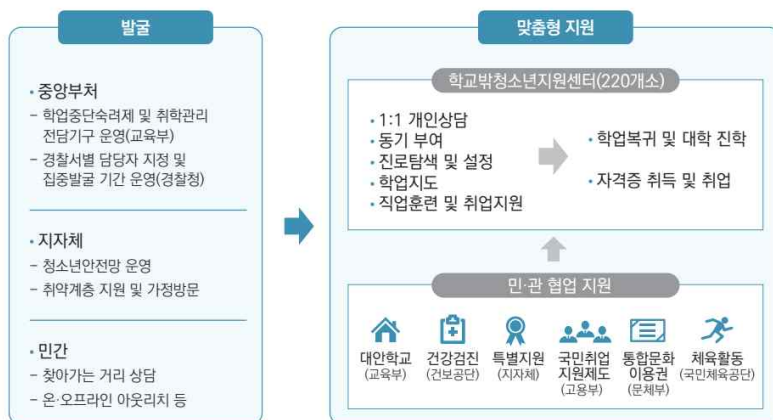
절 차	내 용	해당기관
서비스 안내	-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정보 안내[붙임 2]	연계 요청 기관
서비스 연계 동의	-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3] 작성 (단, 사이버 및 전화 등 매체상당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함)	연계 요청 기관
연계 의뢰 대상기관 선정	- 학교 밖 청소년 거주지 인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와 접촉하여 사전 연계 사실 통보	연계 요청 기관
연계 의뢰	- 청소년 연계 의뢰서를 작성하여, 연계 대상 기관에 서면 또는 팩스(이메일) 전달 [붙임 1]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의뢰서 - 청소년 집단 발생, 또는 인원 모집 후 연계상황 시 집단 연계 서식 작성 후 전달 [붙임 5] 학교 밖 청소년(집단) 연계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첨부	연계 요청 기관
조치 결과 통보	- 연계 받은 후, 2주일 이내 조치결과서(양식참조)를 작성하여 연계의뢰 요청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붙임 4]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조치 결과서	연계 대상 기관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p.594.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맞춤형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발굴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으로 이어지는 체계이고, 맞춤형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민·관 협업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중앙부처는 학업중단숙려제 및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교육부), 경찰서별 담당자 지정 및 집중발굴 기간 운영(경찰청)을 주관하며, 지자체는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가정방문을 수행한다. 민간의 경우 찾아가는 거리상담,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민·관 협업 지원체계가 연계·작동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1:1 개인상담, 진로탐색 및 설정, 학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통해 학업복귀 및 대학진학,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연계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지원으로는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모바일 상담이 있으며, 교육지원으로는 학업동기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등이 있다. 기존 학교·대안학교·상급학교 등 학교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 입시학원비를 지원한다. 직업체업 및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직업탐색·체험·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기관 연계, 내일이룸학교 입소를 지원한다. 자립지원의 경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사업(상담, 교육 지원), 문화·예술·체육·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1 청소년백서. p.194.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나. 아동·청소년 대상 위기스크리닝 척도 현황

1)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김동민, 김동일, 안지영, 금창민, 김민지, 2016)

2005년 제작된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2016년에 개정한 것이다. 개정판 척도는 2016년 당시 새롭게 부각된 문제를 반영하였고, 적절하지 못한 몇몇 척도 문항 진술문을 수정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아동의 문해력 및 발달 상황을 고려한 질문의 수정 및 영역 조정이 있었다. 이 척도는 위험요인,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그리고 구조화 심층 면접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위험요인에는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영역(초등생용 척도에서는 제외됨)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영역은 외모와 능력에 대한 자존감, 우울 및 불안, 중독(약물이나 매체, 게임 등), 지능, 성적 관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영역은 폭력과 갈등, 부모와 형제의 비행과 범죄 이력 여부, 가정의 경제적 문제 등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 및 학교 영역은 또래의 비행, 성매매, 따돌림, 교사와 관계, 학습에 대한 흥미 및 성적, 장기 결석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영역은 주거환경, 지역사회의 지원, 지역사회 환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은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 약물사용(초등생용 척도에서는 제외됨), 자살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화 면접지는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족위기 및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임신, 가출의 7개 영역에서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평정은 청소년 상담사(또는 동반자)가 해야 한다. 즉, 청소년 상담사(또는 동반자)가 청소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을 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평정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평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위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훈련된 역량이 필요하다. <표 2>는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구성

분류		내용	
	위험요인 (Part 1)	초등학교 4학년 이하용	초등학교 5학년 이상용
필수 척도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파악하는 척도	개인영역(7)	개인영역(7)
		가정영역(6)	가정영역(8)
		또래 및 학교영역(6)	또래 및 학교영역(7)
			지역사회영역(3)

분류	내용	
<p>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 (Part 2) 청소년들이 보이기 쉬운 타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이나,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하여 있는 상태를 파악하는 척도</p>	<p>초등학교 4학년 이하용</p> <p>자살(1) 가출(1) 가정폭력(2) 학교폭력(4) 인터넷 중독(1) 아동학대(4)</p>	<p>초등학교 5학년 이상용</p> <p>자살(1) 가출(1) 약물사용(1) 성문제(3) 가정폭력(2) 학교폭력(4) 학업중단(1) 인터넷 중독(1) 아동학대(2)</p>
<p>선택 척도</p> <p>구조화 심층 면접지 필수 척도 중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part2) 척도의 한 영역에서 라도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p>	<p>인터넷 중독(5) 가족위기 및 아동학대 (4) 가출(4) 학업중단(3) 약물사용(2) 임신(1)</p>	<p>스마트폰 중독(5) 성폭력(4) 자살(4) 학교폭력(2) 조건만남(성매매)(1)</p>

2)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2017)

교육부는 2007년도부터 학교보건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교육부, 2017). 초기에 제작된 검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발달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요인분석상 요인적재량이 낮은 문항이 포함되어 타당도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 AMPQ-II(Adolescent Mental Health Problem-Behavior Questionnaire-II; 설지원, 김근영, 2015)가 개발되었다. AMPQ-II는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부모가 평정하는 아동문제행동선별질문지(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II, CPSQ-II)를 활용하고 있다. CPSQ-II와 AMPQ-II는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신병리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생용인 AMPQ-II는 ‘성격특성’ 영역, ‘정서행동특성’ 영역, ‘위험문항’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행동특성’ 영역에는 자살, 심리적 부담, 기분문제, 불안문제, 자기통제 부진의 5개 세부 영역을 평가하는 34개 문항, ‘위험문항’ 영역은 학교폭력 피해와 자살 관련 문항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특성’ 영역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공동체의식, 사회적 주도성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 요인을 평가하는 24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반응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3개의 문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생용인 CPSQ-II도 ‘성격특성’, ‘위험문항’, ‘외부요인’, ‘정서행동특성’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특성’ 영역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공동체의식, 사회적 주도성의 6개 특성을 측정하는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험문항’ 영역은 학교폭력피해 여부를 측정하는 2개의 문항, ‘외부요인’ 영역은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 ‘정서행동특성 영역’은 집중력부진(7문항), 불안/우울(10문항), 학습/사회성부진(7문항), 과민/반항성(4문항)을 측정하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해당 척도 평정의 경우, 아동이 아니라 부모가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0~3점 중 어느 하나에 평정하는 4점 척도이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7로 추정되었으며, 정서행동특성 총점과 교사 평정치 간 상관은 .25로 나타났다. 위험군은 T점수 평균(50점)보다 1.5 표준편차 이상인 점수(65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통계적으로 정의하였다. ‘자살 및 경련’에 관한 문항에서 2점 이상인 경우도 면담이 필요한 위험군으로 규정하였다. <표 3>은 초등학생용과 중·고생용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측정영역 및 문항 구성을 제시한 것이다.

<표 3>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측정영역 및 문항 구성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유형	내용	유형	내용
개인 성격적 특성 (24)	내적: 성실성(4), 자존감(4), 개방성(4) 외적: 타인이해(4), 공동체의식(4), 사회적주도성(4)	개인 성격적 특성 (16)	내적: 성실성(4), 자존감(4), 개방성(4) 외적: 타인이해(4), 공동체의식(4), 사회적주도성(4)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위험 문항 (2)	학교 폭력 피해(2)	위험 문항 (4)	학교 폭력 피해(2)
외부 요인 (4)	부모자녀 관계(4)		자살관련(2):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력
정서 행동 문제 요인 (29)	집중력부진(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정서 행동 문제 요인 (34)	심리적부담(10): 자해, 자살, 학교폭력피해, 피해의식, 관계사고, 반항성향
	불안/우울(10): 불안장애, 우울증, 심리적 외상 반응, 신체화 성향, 강박성		기분문제(7): 우울증, 기분조절장애,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신체화 성향, 강박 성
	학습/사회성부진(8): 언어장애 및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강박성향		불안문제(9): 시험 및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공포증, 강박성향, 심리적 외상 반응, 환청, 관계사고
	과민/반항성(4): 우울증, 기분조절장애, 반항장애, 품행장		자기통제부진(8): 학습부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
기타 (4)	전반적 삶의 질, 상담경험, 지원 선호도	기타 (4)	전반적 삶의 질, 상담경험, 지원 선호도

3) 다면적 인성검사 청소년용(MMPI-A)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는 본래 성인용으로 개발된 검사이지만, 출판 무렵부터 병원이나 상담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MMPI는 성인을 대상으로 문항과 척도를 개발하고 규준을 작성한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검사문항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거나(어렸을 때 가끔 물건을 훔쳤다, 나는 성생활이 만족스럽다 등) 청소년의 특성-예컨대, 가족문제, 학교문제, 또래문제 등을 고려한 문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MMPI-2에서는 14~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MPI를 따로 제작하였다. MMPI-A는 MMPI-2보다 L, K에서 높은 T점수를 산출하고 대부분의 임상척도에서는 더 낮은 T 점수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MMPI-A는 4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 점수 65 이상일 때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며 60-64점 사이의 점수 역시 높은 점

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본래 MMPI의 L, F, K가 유지되나 F 척도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이외에 두 가지 부가적인 타당도 척도가 개발되었다. 10개의 임상척도는 성인용과 동일하다.

4) 성격평가질문지(PAI)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 도구는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 척도, 5개의 치료척도, 2개의 대인관계 척도 등 서로 다른 영역을 평가하는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다(김영환, 문수백, 홍상환, 2014). 이 검사의 특징은 우울, 불안, 조현병 등과 같은 장애뿐 아니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PAI는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피병이나 과장 및 무선 반응과 같은 반응 왜곡의 탐지에 유용하다(김영환, 문수백, 홍상환, 2014). PAI의 각 척도는 3~4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장애의 상대적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Behavior Checklist; CBCL)는 아동 및 청소년 문제 행동의 여러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은 4~18세 아동 및 청소년이며, 부모 및 주양육자가 평정하는 척도뿐 아니라 교사가 평정하는 척도(TRF)도 개발되었다(이우경, 이원혜, 2015). CBCL은 모두 120문항으로 0~2점 범위의 3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문제 행동 척도와 적응 척도로 분류된다. 문제행동 척도는 다시 증후군 척도, DSM 진단 척도, 문제행동특수척도로 나뉜다. 증후군 척도에는 내재화(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외재화(규칙위반, 공격행동),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 문제가 있으며, DSM 진단척도에는 DSM 정서문제, DSM 불안문제, DSM 신체화문제, DSM ADHD, DSM 반항행동문제, DSM 품행문제가 있다. 문제행동특수척도에는 강박증상, 외상후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부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응척도에는 2개의 하위척도(사회성 척도, 학업수행 척도)가 있다(이우경, 이원혜, 2015). 만 6세~18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상태 및 행동문제를 측정하며, 각 문항에 부모가 3점 척도로 평정한다.

6) 성격 5요인 검사(청소년용; 정승철, 최은실, 2016, 한국가이던스)

성격 5요인 검사는 Costa와 McCrae(1992)의 Big5 성격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5개 성격 요인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이다. 각각의 요인은 해당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성의 경우, 경험추구, 상상력, 미적 개방성, 지적호기심의 4개 소검사가 있으며, 성실성의 경우 목표지향성, 신중성, 자기통제력, 규칙준수의 4개 소검사가 있다. 외향성의 경우에는 관계지향성, 주장성, 활동성, 긍정 정서의 4개 소검사가 있고, 우호성의 경우, 겸손, 타인존중, 휴머니즘의 3개 소검사가 있다. 신경증의 경우에는 과잉행동, 공격성/비행, 충동성, 우울, 불안의 5개 소검사가 있다.

다섯 개의 요인 중 성실성은 매사에 꼼꼼히 계획하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고, 끈기있게 일을 처리하는 등의 성향을 의미한다. 성실성은 청소년이 목표로 하는 바를 성취하는데 도구적으로 필요한 자기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개 성격 요인 중 성실성은 자기가 평정한 성적과 가장 높은 상관($r=.41$)을 보인다.

성실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소검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목표지향성의 경우 삶의 목적이 뚜렷하며 삶의 방향이 명확함,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함, 신중성은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성, 결과를 고려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 등을 나타낸다. 자기 통제성은 과제나 과업을 시작했다면 다른 유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성해내는 경향을 의미하며, 규칙준수는 정해진 규범, 규칙, 규율을 지키려는 성향, 일의 진행을 질서 정연하게 하는 특성 등을 의미한다.

7) 자기존중감 척도

자기존중감 척도(Rosenber, 1965)는 긍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osenberg의 자기존중감 척도는 전병제(1974)가 한국어로 번안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로 보고되고 있다. 각 문항에 1~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8) 낙관성 척도(노영천, 유순화, 2012)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에 직면해서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서(노영천, 유순화, 2012), 낙관성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성향적 낙관성과 해석양식적 낙관성이 있다. 성향적 낙관성에는 '관계에 대한 낙관성' (7문항),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4문항),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 (7문항), '성취에 대한 낙관성' (7문항)이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sim .84$ 였으며, 전체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보고되었다. 해석양식적 낙관성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낙관적 해석' (7문항)과 '긍정적 사건에 대한 낙관적 해석' (6문항)이 있다. 신뢰도는 두 척도 각각 Cronbach's $\alpha = .57$ 및 $.65$ 였으며, 전체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로 추정된다.

9) 가정외 보호 청소년 자립기술평가 척도(김지선, 이정애, 김보옥, 정익중, 2018 청소년복지연구, 20(2))

가정외 보호 청소년 자립기술평가 척도는 가정외 보호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가출· 학교 밖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자립준비 평가 도구도 개발되었다(김세진 등, 2020). 아동복지법(법 제39조, 시행규칙 제18조)에서도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능력 수준 및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조규필 등, 2021). 김정연 등(2011)은 시설에 거주하는 십대 여성청소년을 위해 4영역(경제·생활·관계·정서적) 7요인으로 구성된 자립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조규필(2013)은 자립의지, 진로, 직업역량 등 7영역(16요인)으로 구성된 자립준비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는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청소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동의 자립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단(2013)은 신희령(2000)이 개발한 기존의 자립준비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척도들에는 시설보호 과정에서 진행하는 자립프로그램 내용을 전제로 한 문항이 많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가정외 보호 체계 전체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김지선 등(2018)은 자립기술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는 6개 영역 40문항이다. 6개 영역으로는 일상생활(8문항), 자기보호(6문항), 지역사회자원활용(6문항), 돈관리(6문항), 사회적기술(7문항), 그리고 진로탐색(7문항)이 있다.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과 관련된 하위영역은 사회적 기술과 진로탐색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술 영역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만 15~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6$ 으로 추정되었다. 진로탐색 영역은 진로와 관련한 탐색 결과(예, 진로목표설정, 교육 및 훈련, 비용에 대한 정보 등)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6$ 으로 추정되었다.

10)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김아영, 박인영, 2001, 교육학연구, 39(1), 95-12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

을 지칭한다.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간주된다(Bandura, 1997).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과제를 지속하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평가는 능력, 즉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3요인(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정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로 보고된다.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으로 추정되었다. 자신감 요인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 로 보고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6점 척도로 평정한다.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간 상관은 $r = .34$ (과제난이도 선호), $r = .16$ (자기조절), 그리고 $r = .15$ (자신감)로 보고되었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설명량은 $R^2 = .12$ 로 나타났다.

11) 시사점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청소년의 위기를 개인·가정·또래·지역사회 등의 영역에서 스크리닝하고자 개발된 척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학업중단 청소년이거나 위기청소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허민숙, 2020), 심리·역량·자원 등을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둘째, 이 척도는 초기 면접에서 수집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담자가 평정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 척도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의 한계로 청소년이 스스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학생이 작성하는)로 활용되고 있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적절성이 있다(예,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용어, 자기보고에 따른 편향 등)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청소년의 정신병리나 부정적 행동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갖추어야 하는 긍정적 성격특성도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성격적 역량의 수준을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에서 특히 필요한 측정영역으로 판단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비스 지원기간 동안 청소년이 어느 정도나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정 외 보호 청소년 자립역량 척도의 사회적 기술 영역과 진로탐색 영역은 이런 목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약 80%가 검정고시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업적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

감도 이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등학생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는 자기 보고식과 부모 평정 방식 모두가 가능할 것이다. 아동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부모가 동반해서 방문하는 점을 감안 하면, 부모가 평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자녀 관계 등에 관해서는 아동의 보고가 필요할 수 있어서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두 방식의 척도가 마련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자 및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가. 성격적 강점

학교 밖 청소년은 익숙했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준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새로운 삶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강점 활용 능력은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하게 되는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서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이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문인오, 이영주, 이정란, 2019).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성격적 강점은 ‘자기존중감’이다.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이 스스로 지각한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를 의미한다(김경연, 1987).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존중감은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강승규, 1994). 따라서 높은 ‘자기존중감’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자기 상(self-image)을 형성하게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최효식, 연은모, 2022). 즉,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높은 정도의 행복감 및 희망을 보이고(황연경, 홍은영, 2018),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한다고(최효식, 연은모, 2022)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기존중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더불어, 신체화, 불안, 우울, 자살·자해,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 발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또한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기존중감’은 증상 완화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관은 청소년이 호소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무엇인지와는 관련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성격적 강점은 낙관성이다. 낙관성은 역경에 맞서 긍정적인 사고를 만들어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에너지이자 동기라고 할 수 있다(문용선, 이운형, 2016). 낙관성은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resilience)과 함께 중요한 긍정 심리자본 중의 하나이다. 낙관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과 긍정적인 대인관계,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낙관적인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으며, 그 결과 만족스러운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다(정세환, 2019).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낙관적인 학교 밖 청소년은 낮은 우울을 경험한다(김민선, 2019). 이런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문용선, 이운형, 2016에서 재인용).

낙관성은 안정적이고 촉진적인 환경에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문용선과 이운형(2016)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감, 낙관성 점수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면접하여 예상과 달리 나타난 이 결과의 이유를 탐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첫째, 검정고시반이 또 다른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제공해 주었다. 둘째, 비슷한 상황의 또래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셋째, 오래지 않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성취목표가 생겼다. 넷째,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관심과 칭찬, 헌신으로 학교에서 느꼈던 심리적 불편감이 해소되었다. 다섯째, 매주 진행되는 집단상담 활동은 자아탄력성의 향상, 소외감 해소, 자신감과 낙관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이와 같은 보고는 낙관성이 상담, 교육,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특성이며,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가 효과적인지를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청소년의 성격적 강점은 성실성이다. 성실성이란 “매사에 꼼꼼히 계획하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고, 끈기 있게 일을 처리하며, 원칙적인 성향”을 뜻한다(정승철, 최은실, 2016, p. 30). 성실성이 강한 청소년은 정해진 규범, 규칙

및 규율을 잘 지키며(규칙준수), 부지런하고 삶의 방향이 명확하고(목표 지향성),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신중성), 어떤 과제나 과업을 끝내기까지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자기통제). 성실성이 높은 청소년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성실성이 반드시 높은 성취 기준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Roberts & Robins, 2000).

나. 정서 및 행동 문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과 후에 걸쳐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Crespo-Molero & Sánchez-Romero, 2021). 예를 들어, 학교 교사들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의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을 묘사하는 키워드로 반발이나 저항이 아니라 “무기력”을 든다(정연순, 이민경, 2008).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는 학교를 떠나기 전부터 외현화 장애 문제, 즉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파괴적 행동, 학교 부적응 문제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Esch et al., 2014). 이런 보고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는 학교를 떠나기 전부터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일부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후에도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 특성을 보인다. 2021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75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10명 중 3명은 우울, 불안, 그리고 자살 등에서 정도 이상의 임상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원 등, 2021).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 35%는 정도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29%는 정도 이상의 불안 증상을, 그리고 20.4%는 최근 1년 내에 심각한 자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비해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사고율은 20.1%로, 동일 연령대 학생의 자살 사고율인 10.9%보다 높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은 7.4%로, 동 연령대 학생의 자살 시도율인 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같은 해에 수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의 정신건강 문제(즉, ADHD, 자해행동, 신체화, 우울, 불안, 자살위험성, 스트레스, COVID-19에 의한 외상성 고통)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중증도가 학

생 청소년의 중증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불안, 그리고 자살 위험성의 경우, 정도 이상의 중증도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학생 청소년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가지의 비행 유형(즉,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패싸움, 절도, 도박) 중 한 가지 이상의 비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학교 밖 청소년(35.2%)이 학생 청소년(6.0%)보다 높게 나타났다. 7가지 폭력 유형(즉, 조롱, 따돌림, 폭행, 협박, 금품갈취, 욕설, 성폭행/성희롱) 중 한 가지 이상의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청소년(4.0%)보다 학교 밖 청소년(6.6%)이 약간 더 많았다.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청소년(5.8%)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11.7%)이 더 높았다(최정원 등, 2021).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이후에 가정, 친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출, 비행 및 범죄, 정신건강 문제, 직업 및 진로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또한 학교를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채경선, 박미경, 2019).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이후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료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생활의 지속, 학교를 떠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 악화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김범구, 조아미, 2013). 또한 아직 직업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생활 조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2013)는 학교 밖 청소년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직후부터 6개월까지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시간을 낭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처음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까지 견뎌내야 했다고 보고하였다.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2007)도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후 ‘걱정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짐’,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짐’, ‘학교생활이 그립고, 자퇴한 것이 후회스러움’,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을 견디기 어려움’,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자로서 정체감 혼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주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진 등, 2021). 김희진 등이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충분하다고 지각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안정적인 심리상태, 높은 진로성숙도, 높은 신체활동 수준, 그리고 높은 사회관계 친밀도를 보였다. 반면, 학교를 그만두기 전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불안정한 심리상태, 낮은 진로성숙도, 적은 수면 시간과 낮은 신체활동 수준, 낮은 사회관계 친밀도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최지연과 김현철(2016)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해체를 경험한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 인지적 문제, 학업성취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며, 비행, 중독 등 다양한 부적응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태혁과 장혜림(2021)은 부모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게임중독 수준과 우울 수준이 높으며, 높은 우울 수준은 게임중독의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다.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유능감

청소년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성인기 전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다(이자형, 2015). 청소년이 이런 발달과업을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학교가 수행하므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경우 진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노지혜, 문성호, 2018).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청소년에 비해 진로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복희, 2014). 또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친 학업중단패널 조사 결과(윤철경, 최인재, 김강호, 유성렬, 김태화, 손희정 2015)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32.4%는 직업기술을 배워 아르바이트 및 취업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기와 직업 세계의 탐색, 진로의사결정능력의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 지원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필수서비스 중 하나가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성취해야 할 필수적인 특성으로 학업 효능감을 들 수 있다. 학업 효능감이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관한 기대나 신념으로, 학업적 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개인의 특성이다(김민선, 2020).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80%가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학업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제공된 서비스가 얼마나 청소년의 학업적 효능감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로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을 느끼고 축적해 간다. 사회적 유능감이란 사회적 상호작

용을 통해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Rubbin, Booth, Rose-Kransor & Mills, 1995)에 대한 지각이다(조문희, 2012). 사회적 유능감은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부적응과 비행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다(정은미, 유형근, 조용선, 2012; 조영순, 2004).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업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보이며, 진로와 학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조문희, 2012). 청소년기는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 성장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불안정하기에 학업적 스트레스, 압력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박영순, 김판희, 2015). 이러한 어려움은 청소년에게 학교 부적응,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손경원, 이인재, 2009).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적 유능감의 증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Zins & Elias, 2007). 미국의 ‘학업 및 사회정서학습협회’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능감이 학업 관련 태도와 행동 그리고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업성취를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능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행을 예측하는 주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유능감을 갖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로 Merrell(1993)은 또래와 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 자기조절과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기술,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는 학업적 기술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및 Reis(1988)는 사회적 유능감을 (1)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개시, (2)자신의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3)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 (4) 타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 (5) 갈등 관리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유능감으로 정의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실무자 요구조사

가. 조사대상

현장 실무자 대상 사전 초점집단면접(이하 FGI)은 연구진 중 FGI 면접 경험이 있는 1명이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전 참여하는 현장 실무자에게 미리 질문지를 발송하여 문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사방법

FGI는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FGI는 2022년 5월 26일에 진행되었으며, 2차 FGI는 2022년 6월 20과 22일에 진행되었다. 두 번의 FGI 모두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은 연구진이 미리 전달한 질문지의 질문 문항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요한 경우, 연구진이 추가 질문을 하였다. FGI 시작 전 녹화(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FGI 종료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4> 실무자 요구조사 참여자

	대상자	지역	직위	나이	성별	현 기관 근무 경력
1차	현장전문가 1	부산	팀원	34	여	4년 1개월
	현장전문가 2	부산	팀원	31	남	3년 7개월
	현장전문가 3	충북	팀원	34	남	2년 3개월
2차	현장전문가 4	대구	팀장	36	남	4년 2개월
	현장전문가 5	광주	팀장	41	여	5년 4개월
	현장전문가 6	경기	팀장	47	남	7년 2개월
	현장전문가 7	서울	팀장	35	여	6년

	대상자	지역	직위	나이	성별	현 기관 근무 경력
	현장전문가 8	인천	팀원	26	여	2년 5개월
	현장전문가 9	충북	팀장	40	여	10년
	현장전문가 10	경기	소장	48	여	20년
	현장전문가 11	서울	팀원	34	여	4년

다. 측정도구

실무자 요구조사의 주요 내용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연계되는 경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및 욕구, 활용하고 있는 척도 현황 및 개선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 중 2인이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나머지 2인이 질문지 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 질문을 선택하였다.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의 제안에 따라,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실무자 요구조사 구분 및 내용

	구분	내용
1차	도입	· 자기 소개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연계 경로
	전환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및 욕구 · 활용하고 있는 척도 현황 및 개선사항
	마무리	· 기타 의견
2차	도입	· 현재 근무처, 경력, 전문적 배경 등
	전환	·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정도 ·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현황 · 새로운 척도의 방향성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접수면접지의 필요성 여부
	마무리	· 기타 의견

라. 분석방법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으로써, 주제가 비슷하고 의미 있는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도출된 개념을 범주화하였다(김영천, 2012; 박성희, 2004). 먼저 축어록을 각자 읽은 후 의미에 맞는 주제별로 연관성을 탐색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명명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개별 분석한 내용은 연구진 모임에서 합의를 거쳐 재범주화 하였다.

2. 실무자 요구조사 분석결과

가. 조사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행동 및 환경 요인 척도”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황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FGI를 실시하였다.

나. 분석결과

1) 1차 실무자 FGI 분석 결과

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학교 밖 청소년의 자퇴 형태’ 는 ‘자발적 자퇴’ 와 ‘비자발적 자퇴’ 로 나뉘었다. 자발적 자퇴의 경우, 학업 부적응,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 다니는 것에 흥미가 없음 등의 이유로 자퇴하는 경우였다. 비자발적 자퇴는 학교폭력이나 비행에 의한 자퇴였다.

‘성격 및 행동 특성’ 으로는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 ‘자기관리가 되지 않음’, ‘사회적 기술이 떨어짐’, ‘채무 관계가 있음’ 등이 행동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대인관계 특성’ 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친구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과 ‘잘 어울리지 못함’ 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습 특성’ 으로는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짐’ 과 ‘공부 방법을 모름’ 이 제시되었다. ‘센터에 대한 요구 사항’ 으로는 ‘검정고시 일정 안내’ 와 ‘서류의 대리 접수’ 가 제시되었다.

<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범주	하위개념
자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자퇴 : 학업부적응, 대인관계 어려움, 학교 다니는 것에 흥미가 없음 · 비자발적 자퇴 : 학교폭력, 비행
성격 및 행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 · 자기 주장이 강함 · 시간 약속 등 사회적 기술 떨어짐 · 접수만 해 놓고 센터에 오지 않는 청소년 많음 · 자기관리가 되지 않음 ·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음 · 돈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터넷 도박을 하기도 함
대인관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대가 없으면 잘 어울리지 못함 · 다른 친구들과 소통이 되지 않음 · 다소 위협적이지만 의리가 있음 · 다양한 성격의 청소년들이 센터에 있어서 서로간 불만이 있음
학습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짐 · 효과적 공부 방법의 부재 · 수행과 암기과목을 왜 해야 하는지 모름 · 대학입학을 위한 정보의 부족함 · 부모가 믿어주는 경우 계획을 짜서 대학 준비
센터에 대한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일정 안내 및 서류 대리 접수

“학교를 비자발적으로 자퇴, 그러니까 학폭이나 그러한 걸로 비행 때문에 자퇴하게 된 아이들과 그다음에 정말 학업 부적응, 대인관계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자퇴하는 청소년들의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자퇴하는 청소년은 수강 명령이나 보호 관찰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학교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실무자 1)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을 여러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문제’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센터 왔을 때 선생님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소통도 잘 되고 물론 약간 좀 위협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친구처럼 해서 의리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 반면에 조금 내성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소통 자체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실무자 3)

“그럼 옆에 여섯은 그냥 학교가 재미없어요. 그냥 학교 수행평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암기 과목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믿어주시는 경우면 이제 자퇴를 해서 자기만의 이 플랜을 가지고 검정고시를 따서 수능을 보든 이렇게 이제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자기는 어떻게든 자퇴는 하고 싶은 친구도 있는 거예요.” (현장 실무자 2)

구들은 센터 와서 좀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장 실무자 2)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학을 입학하려면 수시라던가 정시라든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던 친구들은 아예 이걸 모르고 19살까지 그냥 검정고시 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기 전에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공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현장 실무자 3)

“저희가 주로 애들 만나는 친구는 자기 꿈을 위해서 또는 정말 부적응해서 오는 아이들인데 확실히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생각도 틀에 박히지 않고... 그만큼 자기주장도 강한 반면, 시간 약속 등 사회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 실무자 1)

나)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및 욕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로는 우선,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학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도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이나 자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 밖에 청소년들은 동아리 활동, 체육활동, 문화체험, 멘토링 등과 같은 자기개발 활동’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및 욕구

범주	하위개념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욕구 · 검정고시 일정 및 신청에 대한 안내 제공
대학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을 위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시컨설팅 제공(교육청 입시 설명회 참가)
취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정보 · 자립에 대한 정보 제공
자기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 · 급식 제공 · 체육활동 · 수학여행 · 문화체험 · 멘토링
바라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입시 컨설팅, 진로 정보제공 필요

범주	하위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및 학업 이외 문화예술체육 관련 지원이 더 필요함 ·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

“저희는 아이들이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해는 서로 입시 컨설팅 신청하려고 대학 입시 의욕이 많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유난히 또 올해는 자격증이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은 대학입시와 관련한 욕구가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다만, 아까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대학은 가고 싶으나 가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해 걱정도 하고 질문도 해오는 것 같아요.” (현장 실무자 1)

“대학은 가긴 가야 하는데 어디 대학 어느 과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완전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대학은 가야 하는데 무슨 과를 가야 할지 어려워하고... 평소애 좋아하는 게 뭔지 이렇게 물어가면서 서로 이제 같이 찾아가는 방향이거든요 이 학교가 좋다더라, 이 과가 좋다더라 하면 애들은 또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가지고, 또 거기에만 거의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저것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보면서 점점 찾아가 보자...” (현장 실무자 2)

“학교 밖 청소년 대다수가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진로 관련 수요가 높으나, 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학업부진을 겪는 청소년이 다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입시설명회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재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입시 컨설팅, 정보제공 등이 필요해요.” (현장 실무자 3)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 가는 경우에는 1위가 문화예술을 제일 많이 참여하고 싶어 했고요, 그다음으로는 생각보다 신체 단련,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아서 작년에 이제 몇 개 센터와 같이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걸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체 단련이나 문화예술 부분이 아이들이 많이 하고 싶어 했고...” (현장 실무자 1)

다) 활용하고 있는 척도 현황 및 개선 사항

2016년도에 개발된 위기스크리닝 척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1차 FGI에 참여한 3명의 실무자 중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1명은 다른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척도의 개선 사항으로 ‘용어의 수정’을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려운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폭력

서클’ 과 같은 오래된 용어를 수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시 방법’ 으로는 청소년의 편의성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를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스스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청소년이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였다.

‘바라는 척도’ 에 대해 현장 실무자들은 (1) 사회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 (2) 진로 계획을 알 수 있는 척도, (3)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 (4) 현재 겪고 있는 힘든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 (5) 문제행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 (6) 우울이나 자해 등 우선 개입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 활용하고 있는 척도 현황 및 개선 사항

범주	하위개념
위기스크리닝 척도 사용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고 있음 (3명 중 2명) · 다른 척도들을 사용하고 있음 (3명 중 1명)
용어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없음(인터넷과 스마트폰은 하나의 개념) ·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함(내담자, 채무라는 모름) · 자살이나 성폭력이라는 단어에 예민함
실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척도 필요 · 자기보고식일 경우 진정성 없이 보고할 가능성 있음 · 남자상담자가 성과 관련된 부분을 여자청소년에게 묻는 것이 부담됨 · 자신의 현 상황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 있어서 보고를 잘 하지 못함 ·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됨 · 청소년이 스스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이 필요
바라는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있으면 좋겠음 · 진로에 관해 학교 밖 청소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척도 필요 · 청소년의 힘든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 · 미디어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 · 도박 중독 등 다양한 중독에 대한 내용 필요 · 우울, 중독, 자해 등 복합적인 부분 반영할 필요 · 과거에 뭘했나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되는지 알 수 있는 척도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사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즘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곧 인터넷이고 SNS라서 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의 비중을 봤을 때 요즘 친구들은 거의 다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서류 작성을 위해 한글 파일을 보냈는데 핸드폰으로 안 된다고 저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한글 파일을 받으면 저희는 보통 컴퓨터로 작성해서 다시 보내고 하

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사용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현장 실무자 3)

“문항 내 단어 자체를 이해 못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척도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기준에는 어려운 단어는 없었는데, 친구들 기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 ‘채무’ 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현장 실무자 3)

“이제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체크 문항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자살이나 자해, 성폭력, 가출 이런 문항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한번 얘기해보고 상담복지센터 연계하려고, 상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계를 하는 거고, 아직 생각이 없어요.” (현장 실무자 2)

“아이들이 일찍 사회 집단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거나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못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기술 능력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현장 실무자 1)

“성격을 조금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진로 및 직업 쪽 관련된 척도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더 많은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실무자 3)

“미디어 성범죄에 접근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어플 하나만 있으면은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 신체 하나 찍어서 보내면은 그런 걸로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감도 해주고, 그걸로 위안을 받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스크린 척도 내 성 문제에 미디어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 실무자 1)

2) 2차 실무자 FGI 분석 결과

가)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정도 및 현황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 사용 유무’에서는 2차 FGI에 참여한 8명의 실무자 중에 네 명이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 명은 다른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한 명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척도의 개선 사항으로 학교 안 학생 중심의 용어나 표현(예, ‘선생님과의 불화’)의 수정을 들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나 표현도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활용의 어려움’으로는 척도의 문항 수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첫 회기에 면접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현실적

으로 이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스스로 평정하는 자기보고 식 척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척도의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한계로는 우선, 이 척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현재 척도는 “실시자 평가식”이어서 실시자가 질문을 정교하게 해야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담 훈련을 받지 않은 실무자나 초보 상담사에게는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실시자의 어려움”). 또한, 청소년들이 민감한 문항에는 ‘거부감’을 느껴 답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나름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였다. 센터 방문 초기,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척도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살 과 같은 항목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표 9>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정도 및 현황

범주	하위개념
위기스크리닝 척도 사용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고 있음(8명 중 4명) · 사용하지 않음(8명 중 3명) · 상황에 따라서 다름(8명 중 1명)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과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 질문 내용이 학교 다니는 학생 중심의 내용 · 가출과 관련된 항목이 잘 맞지 않음 · 응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이 있음 ·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만 문항은 순화할 필요가 있음
활용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자기보고 하고 추가 질문만 물어봄 · 안내해야할 사항과 개인력을 알아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함 · 초기에 실시하지 못하면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음
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항에는 아니다로 체크함 · 청소년들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이 있어 활용에 의문이 생김 · 청소년의 응답이 객관적인지에 대한 의문
비자발적인 내담자에게 실시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과 비자발적인 청소년에게 초기부터 위기스크리닝을 사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음 ·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하기가 힘들 ·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힘들데 민감한 질문으로 인하여 멀어져 버리게 될까봐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쓰는데 꺼려짐
척도 문항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긴급 개입의 필요성이 파악하기 힘들 · 부모상황에 대해서 청소년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 · 실제와 다르게 고위험군으로 나옴

범주	하위개념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 자체가 위기로 분류됨
실시자의 어려움	· 질문을 숙련되게 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가 개인사례가 많다보니 동시에 여러명 파악하는게 어려움
거부감	· 민감한 질문에 의해서 센터에 대한 거부감이 생김 · 민감한 정보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보호자도 이야기하기를 꺼려함 · 가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 더 거부함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효용성	· 위기스크리닝을 통해서 초기에 객관적인 정보를 얻게 됨 · 자퇴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음 · 위기스크리닝의 자살항목의 응답에 기초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밖인데 재학생 걸 쓰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학교 밖 아이들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인 혹은 자주 학교를 결석한다 이런 질문들은 저희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할 때마다 아이들이 계속 물어봐요.” (현장전문가 6)

“아이들이 이게 사실대로 작성한다고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상담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표현한 것도 많아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라는 의문을 조금 많이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현장전문가 7)

“은둔형 친구들도 사실 많고 비자발적인 친구들도 조금 많은 편이어서 초기 만나면 이런 걸 파악하기 사실 쉽지 않아서 일단은 아이와 관계를 쌓는 데까지 시간을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편이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현장전문가 11)

“질문을 숙련되게 못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질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체크하는 것도 좀 수월한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전문가 9)

“질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학교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답을 회피하거나 혹은 보호자와 함께 갔을 때도 보호자가 그거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전문가 4)

나) 새로운 척도의 방향성

현장 실무자들은 우선,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연령 구분’) 활용하는 척도가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대다수의 현장 실무자는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에 초등학교 연령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연령 청소년을 위한 척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척도의 형태’ 로는 청소년이 스스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질문지에 답한 후, 실무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형식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척도 구성 시 고려사항’ 으로는 단순히 ‘예/아니요’ 문항은 지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할 때의 거부감이나 모호함을 완화하기 위해 5점 척도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문항 표현이 “순화” 되어야 청소년이 거부감 없이 성실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실무자들은 ‘척도 실시 시점’ 으로 청소년이 센터를 방문하는 첫 회기 때를 선호하였다. ‘문항 수’ 는 적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첫 회기에 작성할 서류가 많아서, 단시간에 응답을 완료할 수 있는 척도여야 할 것이라 하였다. 현장 실무자들은 (1)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문항, (2) 지원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3) 자립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한 척도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항 구성’). 현장 실무자들은 (1) 자살 시도 및 자해 유무, (2) 자퇴 이유, (3) 신체 질병, (4) 정서 상태, (5) 가족 관계, (6) 부모의 지지, (7) 정신병리, (8) 다양한 욕구, (9) 자립역량, (10) 사회성 파악 등을 위한 문항들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필요 문항’).

<표 10> 새로운 척도의 방향성

범주	하위개념
연령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별도의 척도 개발 · 연령대별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 구분이 필요
척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보고식이 적절 · 청소년이 먼저 작성 후, 실무자가 추가 질문하는 형태 · 청소년이 답변하는 것과 상담자가 평정해야 하는 문항의 구분 필요
척도 구성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척도가 적절함 · 직설적인 질문은 청소년이 불편해함 · 문항의 “순화”가 필요함
척도 실시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방문 때 실시 해야 청소년 파악에 도움이 됨 · 첫 회기 이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 방문 때 실시 완료해야 함 · 두 번 세 번 나눠 하면 청소년이 번거롭게 여김
문항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에 맞는 쉬운 문항이 적절함
문항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상태에 대한 빠른 파악과 평가가 필요함 · 짧은 시간 내로 할 수 있으면 좋겠음

범주	하위개념
문항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단어는 지양, 실무자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필요 · 지적 수준이나 어휘력에 맞는 분명한 질문 문항 · 문항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도록 진술할 필요 · 문항을 거부감이 들지 않게 수정할 필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항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지원 탐색을 위한 문항 필요 · 청소년에 필요한 개입을 탐색할 수 있는 문항 · 청소년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요소 파악의 문항이 필요함 · 자퇴 이후 어려움이나 앞으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문항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테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활용 고려 ·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똑같은 척도를 사전·사후에 하는 것도 필요함
필요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 사용, 자살·자해 경험 파악 필요 ·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필요 · 신체 질병을 알아보는 문항 필요 · 현 정서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문항 필요 · 가족 관계는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기 · 가정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문항 필요 · 정신병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필요 · 법원 판결, 보호처분 여부를 파악할 문항 필요 · 일상생활의 관리기능을 체크 하는 문항 필요 ·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 파악 ·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 사회진입 역량을 파악하는 문항 ·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 취약한 부분과 지지자원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항 · 부모의 지지를 확인하는 문항 필요 · 사회성을 알아보는 문항 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가정영역이나,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단어도 그렇고 질문 자체도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장 실무자 7)

“예를 들면 예 아니오, 미확인인데 그것보다는 척도를 조금 더 아이들의 정도를 좀 볼 수 있다면 아이들이 매우 아니다. 전혀 아니다. 혹은 조금 그렇다 같이하면 그래도 뭐가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오와 같이 너무 흑백으로 딱 갈라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있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문하는 등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미확인은 또 애들이 잘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항을 아이들의 연령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가볍게 그리

고 그 가벼운 걸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내놓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실무자 6)

“만약에 저도 뭔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건 약간 사회성 영역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묘하게 사회성들이 다들 약간씩은 좀 많이 부족하거나 대인관계 영역도 이 학교 밖 안에서는 뭔가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다른 집단과의 활동에서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뭔가 폐쇄적이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위축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현장 실무자 9)

“그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리고 좀 단축한 정도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것도 이름이 스크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현장 실무자 5)

“친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장에 척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친구들이 답변해야 하는 것과 또 상담자가 평정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장 실무자 8)

“이게 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꺼내기가 조금 사실상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 시기에 태블릿으로 하거나, 저장할 방법이 다양하게 많은데도 이런 부분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현장 실무자 4)

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접수면접지의 필요성 여부

현장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접수면접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첫 방문 시에 신청서, 사정기록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접수면접지는 청소년을 번거롭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무자들도 추가로 접수면접지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접수면접지의 필요성 여부

범주	하위개념
접수면접지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첫 방문 시에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별도의 접수면접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 · 실무자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고 청소년에게 번거롭게 함 · 위기스크리닝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함 · 사정기록지가 있는데 접수면접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저희가 이제 꿈드림 신청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접수면접지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 이름이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언제 학교를 그만뒀는지 가족 사항은 어떤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양면으로 해서 두 면에 걸쳐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 쓰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뭔가를 또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기 스크린도 어떻게 보면 또 하는 거여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꿈드림 신청서에 애를 넣어주면 필수 사항으로, 그럼 저희가 그냥 이걸로 다 가름해버릴 수 있거든요.” (현장 실무자 6)

“이미 사정 기록지가 너무 탄탄하게 사실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위기 스크리닝 정보까지 하면 이걸 엄청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전 기록지가 있는데.. 접수면접지 추가는...” (현장 실무자 11)

라) 기타 의견

현장 실무자는 기타 의견으로 ‘사후 연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척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상담복지센터 등 타 센터와의 연계에 있어서 인력 문제, 상담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2> 기타 어려움

범주	하위개념
보상요구	· 청소년이 설문을 완료하면 보상을 바람
사후 연계	· 청소년 파악 후 타 센터와 연계의 어려움(인력 문제, 상담 지연 문제)

“이거 좀 해달라고 해도 제가 약간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지 본인들이 약간 해야 할 어떤 요소를 잘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아이들에게 어떤 설문 조사나 이런 걸 할 때마다 늘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는 하면 뭐 주는데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설문 조사는 늘 뭐가 있어 하긴 해요.” (현장 실무자 6)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가 이렇게 마련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하라고 얘기돼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만났는데 대부분 아이는 저희한테 개방한 거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을 그럼 저희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외부로 연계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기 종결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 실무자 6)

다. 시사점

첫째,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실용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문항 진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장 실무자들은 제공할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예를 들면, 부모의 지지 정도)를 얻기 위한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개발될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청소년이 스스로 평정하는 것(즉, 자기 보고식 척도)이어야 더 쉽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응답하기에 이분 척도보다는 5점 척도가 더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척도의 실시 시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을 위해 처음 방문할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현장 실무자는 첫 회기 때 안내 사항과 필요 서류들이 많아 척도를 실시할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파악과 개입을 위해서는 첫 회기 실시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청소년이 스스로 보고하는 자기보고식이어야 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최초 방문 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적은 수의 필수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 실무자들은 연령대에 따른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연령대이다. 그러나 현장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저연령대 청소년을 위한 척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와 9세~12세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가 모두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새 척도의 측정 내용으로 1) 위험요인(예, 약물, 자해, 자살, 신체적 질병, 정신병리), 2) 보호요인 또는 자원(예, 자기효능감, 자존감, 자립 역량, 사회적 지지 등), 3) 서비스 요구(예, 검정고시 지원, 취업 지원 등), 4) 기타(예, 가족 관계, 일상생활 관리 역량, 대인관계 유능감 등)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예비조사

가. 조사대상

13세 이상 청소년용 및 9~12세 청소년용 예비척도의 타당성 및 문항 적절성을 평가하여 본조사용 척도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9~12세 청소년용 예비척도의 조사에는 초등학교 4, 5, 6학년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척도의 조사에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각 40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 포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60명(중학생 연령 및 고등학생 연령 각 30명)이 참여하였다.

나. 조사방법

예비조사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았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1개교로부터도 협조를 받았다. 이들 기관에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로부터는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5,000원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인터넷 링크를 받아 질문지의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

다. 측정도구

위기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척도의 측정영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존 위기 선별 검사와 청소년의 정서행동 관련 연구결과, 그리고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3세 이상 청소년용 척도와 9~12세 청소년용 척도의 측정영역과 세부 영역을 선정하였다.

1) 13세 이상 청소년용 척도

새로 개발될 척도의 측정영역으로 청소년의 (1)자립역량 (성격 강점, 유능감), (2)심리·정서·환경 문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립역량 영역에는 성격적 강점과 유능감이라는 세부 측정영역이 포함되었다. 성격적 강점 영역은 자존감, 성실성,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능감 영역은 학업 효능감, 진로정보탐색활동역량, 대인관계 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정서·환경 문제 영역은 우울과 불안, 반항 및 품행,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망상 및 환청,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중독적 사용, 자살 및 자해,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학교생활, 건강 및 기타 환경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문항은 기존의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예, 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실태조사),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와 같은 다른 위기선별 척도, 5요인 검사(NEO-PI), 성격강점검사, 여러 척도개발 논문 등에서 추출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문항 각각을 표현의 적절성 및 이해도, 내용의 중복 여부를 연구진이 1차로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 86문항이 선정되었다. <표 13>은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척도의 측정영역, 세부 영역, 그리고 각 세부 내용 영역과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 13>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척도(안)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성격적 강점
자존감 (출처: Rosenberg, 1965; 전병제, 1974)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3	나는 능력있는 사람이다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일을 같이 잘 할 수 있다
	5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6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7	나는 결국 성공할 사람이다
	8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9	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만족한다
	10	나는 지금의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
낙관성 (출처: 노영천, 유순화, 2012)	11	나의 미래는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12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쉽게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는다
	13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일처럼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실성 (출처: 정승철, 최은실,	14	나는 새로운 과제나 일에 착수할 때,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른다
	16	나는 약속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2016)	17	나는 공중도덕을 지키려 노력한다
	18	나는 일을 할 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편이다
	19	어떤 일을 일단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낸다
	20	일과 학업, 여가와 휴식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관리한다
	21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경우,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한다
	22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23	나는 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낸다
	24	재미있어도 내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25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세부 내용	문 항	세부 영역
		심리·정서·환경
우울·불안	26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27	잘 운다
	28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29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30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31	늘 긴장되어 있다
	32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33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34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과잉행동 · 주의집 중·충동	35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
	36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37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3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39	주의가 산만해져서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40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다
	41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42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반항·품행	43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44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45	가출해서 비행 또래와 함께 지낸 적 있다
	46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해를 입힌 적이 있다

	47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48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심하게 괴롭힌 적이 있다
망상·환청	49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50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51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중독	52	음주 및 흡연,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온라인 게임 및 도박 등의 문제로 타인(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53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자살·자해	54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지난 3개월 동안 몇 번 생각해보았습니까? (회)
	55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 지난 3개월 동안 몇 번 시도하였습니까? (회)
	56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 있다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다면, 지난 3개월 동안 몇 번 해 보았습니까? (회)
부모·자녀관계	5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58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59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
또래관계	60	친구가 없어서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
	61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62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다.
학교생활	63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나쁘다.
	64	학교에 다닐 때,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성적도 낮았다.
	65	학교에 다닐 때, 별 이유 없이 자주 결석했다.
건강·기타	66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
	67	술에 취한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유능감
학업 효능감 (출처: 김아영, 박인영, 2001)	68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69	나는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70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71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72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진로정보 탐색활동(출처: 김지선, 이정애, 김보옥, 저익중, 2018)	73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다
	74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75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76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77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78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79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육비용 등)
사회적 유능감 (출처: 김지선, 등, 2018)	80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81	나에 대한 충고를 화를 내지 않고 들을 수 있다
	82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8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84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85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86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2) 9~12세 청소년용 척도

9~12세 청소년용 척도도 13세 이상 청소년용 척도와 마찬가지로, 자립역량과 심리정서·환경을 측정영역으로 하였다. 자립역량은 성격적 강점과 유능감을 세부 영역으로 하였다. 성격적 강점 영역은 자존감, 낙관성, 성실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능감 영역은 학업 효능감 및 대인관계 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정서·환경 영역의 세부 영역은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척도와 동일하나, 세부 내용에서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망상·환청’ 경험은 제외하였다. 또한 ‘자살·자해’도 세부 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각 세부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 46개는 13세 이상 청소년용 척도에서 추출한 문항을 토대로 연구진이 적절성 및 이해도를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46개의 문항 중 일부는 아동에 맞게 표현이 수정되었다. <표 14>는 9~12세 청소년용 예비척도의 세부 영역, 그리고 세부 내용 및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 14> 9~12세 청소년용 예비척도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성격적 강점
자존감 (출처: Rosenberg, 1965; 전병제, 1974)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낙관성 (출처: 노영천, 유순화, 2012)	6	내 미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7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생각하면 풀 수 있을 것이다.
	8	어려울 때,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실성 (출처: 정승철, 최은실, 2016)	9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10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히 끝까지 한다.
	11	나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한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심리정서
우울·불안	1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13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14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15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6	여러 가지 일에 걱정이 많다.
	17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18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과잉행동· 주의집중· 충동	19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20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21	오래 집중하지 못해서 시작한 일(예, 숙제, 책 읽기)을 끝마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22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23	잘 다친다.
	24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반항·품행	25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아서 친구와 자주 주먹 다툼을 벌인다.
	26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 대부분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27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28	나는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 자주 거짓말을 한다.
	29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심하게 괴롭힌 적 있다(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중독	30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 보기, 온라인 게임 하기, SNS 활동하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환경
부모·자녀 관계	31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나를 때린다.
	32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
	33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며칠씩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길 때가 있다.
	34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심하게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고 내버려 둔다.
또래 관계	35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친구가 없다.
	36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예, 욕을 하고, 때리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37	다른 아이들이 나만 빼고 논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자립역량
학업 효능감 (출처: 김아영, 박인영, 2001)	38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도전해서 마침내 풀어내는 것이 재미있다.
	39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 공부한다.
	40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 (출처: 김지선, 등, 2018)	41	나는 친구를 쉽게 잘 사귀다.
	42	나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43	나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44	나는 친구에게 양보를 잘한다.
	45	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46	나는 친구 여러 명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3) 전문가 자문

선정된 척도(안)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5명, 청소년 상담 전문가 1명, 그리고 대학의 교수 1명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받았다. 자문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예비척도에 대한 서면자문 내용

세부 내용	성격적 강점
자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품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좋은 성격이나 좋은 마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용어 수정) 청소년 중 자존감의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어 다른 다양한 영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존감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판단됨 문항 pool의 확대가 필요함
낙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생활 적응도, 미래에 대한 희망적 관점을 알아볼 수 있어 적합함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일상생활 중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성실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실성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므로 세부 영역으로 적합함 성실성에 대한 평가 문항이 다른 세부 영역의 문항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며, 중복되는 문항이 있음 성실성의 하위 측면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세부 내용	심리정서
우울·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임상적 도움을 요구하는 예도 많으므로 심리정서 평가에 중요한 항목임 ‘성격적 강점’ 영역에서는 기간에 대한 한정이 제시되지 않다가 ‘심리정서’ 영역에서 ‘지난 1개월간 나는’이라는 기간에 대한 한정이 갑자기 제시되었기에 응답자들을 위해 색깔의 변화를 주어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음
과잉행동·주의집중 ·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적 측면을 나타내는 척도임 이 영역에 문제를 보이는 대상들이 있어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함 표면적으로 심각하게 여겨지는 우울, 불안 등에 비해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청소년 자기 보고식 검사의 형식이라면 응답을 제대로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됨 ‘주위 사람들은 나더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한다’ 등의 형식으로 객관화 유도가 필요해 보임 섭식 문제 문항 추가를 제안함
반항·품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적 측면을 잘 나타냈었다 판단됨 중독에 있는 음주/흡연 문항을 반항/품행으로 이동을 제안함 또래와 하는 활동이 많으므로 해당 영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금전과 관련한 문항, 성과 관련한 성매매/원조교제 문항 추가를 제안함
망상·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입하는 데 필요한 영역이라 판단됨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한정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므로 색깔의 변화를 주어 대상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문항의 세분화(음주, 흡연, 스마트폰, 게임, 도박 등)의 필요성
자살·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과 자해 등 위기 상황을 신속히 개입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영역이라 판단됨 자살 및 자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매우 적절함
세부 내용	환경
부모·자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가정을 볼 수 있으며, 가정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판단됨 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간의 관계를 묻는 문항 추가를 제안함 가정 내 경제 상황의 경우 청소년에게는 중요한 환경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를 제안함 높은 불안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 중 부모가 높은 기대 및 심한 통제로 압박 양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방임이나 학대, 지나친 통제를 확인하는 문항의 추가를 제안함
또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에게 또래라는 환경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어서 확인을 위해 세부 영역 편성은 적절하다 판단됨 왕따나 따돌림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청소년이 다수 존재하므로 왕따 및 따돌림 경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예, 친구 관계 원만성 등)이 추가되면 좋겠음 문항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
건강·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의 건강과 기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가 되어 세부 영역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청소년들의 신체 건강 및 신체 발달, 정신건강(상담치료 이력 확인 및 약물치료 이력 확인)에 대한 문항 추가를 제안함 문항 pool의 추가가 필요함
세부 내용	유능감
학업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 효능감은 학업능력으로 잘 못 지각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에게 학업 효능감은 자존감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세부 내용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함
진로정보탐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세부 내용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함
사회적 유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함

실무자 및 전문가의 서면자문 내용을 토대로 예비조사용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부적절한 문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척도 96문항과 9~12세 청소년용 예비척도 47문항이 확정되었다. 아래 <표 16>과 <표 17>은 최종 확정된 13세 이상 청소년용 및 9~12세 청소년용 예비조사용 척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표 16>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척도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성격강점
자존감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2	나는 좋은 인성을 가졌다
	3	나는 능력있는 사람이다
	4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5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낙관성	8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9	어려움이 닥쳐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10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일처럼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11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나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12	나는 새로운 과제나 일을 시작할 때,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실성	13	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
	14	나는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15	어떤 일이나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한다
	16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17	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치려고 노력한다
	18	재미있어도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19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심리정서
우울·불안	20	지난 1개월간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21	지난 1개월간 이유 없이 자주 눈물이 난다
	22	지난 1개월간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23	지난 1개월간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24	지난 1개월간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25	지난 1개월간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26	지난 1개월간 나는 걱정이 많다
	27	지난 1개월간 늘 긴장되어 있다

	28	지난 1개월간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29	지난 1개월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30	지난 1개월간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31	지난 1개월간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과잉행동· 주의집중· 충동	32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33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34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35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36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37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얘기한다
	38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39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반항·품행	40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41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42	가출한 경험이 있다
	43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린 적이 있다
	44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45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46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이 있다
	47	나는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48	나는 성폭행을 한 적이 있다
	49	(여자의 경우) 나는 임신(중절) 경험을 한 적 있다 (남자의 경우) 나는 여자 친구에게 임신을 시킨 적이 있다
	50	나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51	나는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망상·환청	52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53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54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중독	55	지난 3개월간 나는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56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57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58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자살·자해	59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몇 번 자살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60	지난 3개월간 나는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몇 번 자살을 계획하였습니까?
	61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몇 번 자살을 시도하였습니까?
	62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 있다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몸에 몇 번 상처를 내었습니까?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환경
부모-자녀 관계	6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6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65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66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
	6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도래 환경	68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
	69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70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
	71	비행(술 및 담배, 약물, 폭력 등)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다
	72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왕따나 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 있다
	73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 있다
건강 기타	7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75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76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다
	77	술에 취한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유능감
학업 효능감	78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79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

	80	나는 내가 세운 학습계획을 실천한다
	81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82	나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다
	83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진로정보 탐색활동	84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다
	85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86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87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88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89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육비용 등)
사회적 유능감	90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91	나에 대한 충고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92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9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94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95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96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다

<표 17> 9~12세 청소년용 예비척도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성격강점
자존감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낙관성	6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7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8	어려울 때,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실성	9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10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게 한다
	11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심리정서
우울·불안	12	요즘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13	요즘 나는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14	요즘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15	요즘 나는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6	요즘 나는 여러 가지 일에 걱정이 많다
	17	요즘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다
	18	요즘 나는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19	요즘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다
	20	요즘 나는 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21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22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23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24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25	잘 다친다
	26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27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반항·품행	28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 대부분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29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30	나는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 자주 거짓말을 한다
	31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중독	32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33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환경
부모·자녀 관계	34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나를 때린다
	35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
	36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며칠씩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길 때가 있다
	37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또래 관계	38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39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40	다른 아이들이 나만 빼고 노는 것 같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유능감
학업 효능감	4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42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43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	44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45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46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47	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4. 예비조사 분석결과

가. 13세 이상 청소년용 예비조사 척도 분석결과

1) 역량별 기술통계 및 문항분석

심리정서·환경 척도(13~24세용)의 예비척도를 실시하고 참여자의 성별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예비조사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표 18> 성별 빈도

구분	빈도	비율
남자	25	31.6
여자	54	68.4
전체	79	100.0

연령에 대해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중학생 연령 44.3% 그리고 고등학생 연령은 55.7%의 청소년들이 예비척도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 빈도

구분	빈도	비율
중학생 연령	35	44.3
고등학생 연령	44	55.7
전체	79	100.0

본 검사의 역량은 크게 4개로, ‘성격적 강점’, ‘심리정서’, ‘환경’, ‘유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 문항별 기술통계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N=79)	평균	표준 편차
I. 성격적 강점	자존감	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3.91	0.88
		2. 나는 좋은 인성을 가졌다	3.86	0.93
		3.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3.54	1.02
		4.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3.67	1.08
		5.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4.10	0.79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	3.84	0.94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3.39	1.03
	낙관성	8.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3.85	0.89
		9. 어려움이 닥쳐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4.05	0.86
		10.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일처럼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4.16	0.95
		11.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나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4.08	0.86
		12. 나는 새로운 과제나 일을 시작할 때,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56	1.11
	성실성	13. 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	4.15	0.93
		14. 나는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3.29	1.06
		15. 어떤 일이나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한다	3.42	1.07
		16.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3.29	1.27
		17. 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치려고 노력한다	3.96	0.99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N=79)	평균	표준 편차
II. 심리정서		18. 재미있어도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3.89	1.12
		19.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4.18	0.81
	우울·불안	20. 지난 1개월간 나는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2.92	1.20
		21. 지난 1개월간 나는 이유 없이 자주 눈물이 난다	2.04	1.22
		22. 지난 1개월간 나는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2.35	1.24
		23. 지난 1개월간 나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2.34	1.33
		24. 지난 1개월간 나는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1.99	1.03
		25. 지난 1개월간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1.76	1.03
		26. 지난 1개월간 나는 걱정이 많다	3.41	1.21
		27. 지난 1개월간 나는 늘 긴장되어 있다	2.70	1.28
		28. 지난 1개월간 나는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2.37	1.16
		29. 지난 1개월간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2.52	1.39
		30. 지난 1개월간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2.70	1.40
	31. 지난 1개월간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1.84	1.02	
	과잉 행동 주의 집중 증동	32.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1.95	1.08
		33.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1.95	1.11
		34.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2.39	1.28
		35.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2.29	1.12
		36.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2.67	1.13
		37.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얘기한다	2.19	1.20
38.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3.09	1.26	
39.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2.90	1.15		
반항·품행	40.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2.06	1.04	
	41.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1.47	0.89	
	42. 가출한 경험이 있다	1.42	0.83	
	43.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린 적이 있다	1.42	0.91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N=79)	평균	표준 편차
		44.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1.48	0.88
		45.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1.44	0.73
		46.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이 있다	1.29	0.66
		47. 나는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1.05	0.27
		48. 나는 성폭행을 한 적이 있다	1.05	0.27
		49. (여자의 경우)나는 임신(중절) 경험을 한 적 있다 (남자의 경우) 나는 여자 친구에게 임신을 시킨 적이 있다	1.05	0.27
		50. 나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10	0.52
		51. 나는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10	0.52
	망상·환청	52.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1.30	0.70
		53.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1.32	0.78
		54.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1.33	0.81
	중독	55. 지난 3개월간 나는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08	0.42
		56.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58	0.91
		57.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13	0.43
		58.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19	0.56
	자살·자해	59.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52	1.04
60. 지난 3개월간 나는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1.20	0.59	
61.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18	0.55	
62.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 있다		1.23	0.62	
III, 환경	부모-자녀 관계	6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1.38	0.70
		6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1.71	1.01
		65.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1.22	0.59
		66.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	1.59	1.01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N=79)	평균	표준 편차	
		을 한다			
		6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1.19	0.58	
	또래 관계	68.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	1.62	0.95	
		69.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역채점 적용	2.51	1.41	
		70.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 역채점 적용	2.11	1.13	
		71. 비행(술 및 담배, 약물, 폭력 등)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다	1.49	0.96	
		72.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왕따나 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 있다	1.58	1.07	
	건강 기타	73.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 있다	1.20	0.69	
		7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1.35	0.75	
		75.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1.84	1.07	
		76.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다	1.75	1.03	
	IV. 자기 유능감	학업 효능감	77. 술에 취한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다	1.18	0.57
			78.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3.39	1.08
			79.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	3.27	1.24
80. 나는 내가 세운 학습계획을 실천한다			3.03	1.11	
81.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3.09	1.13	
82. 나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다			-	-	
진로 정보 탐색 활동		83.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3.62	0.98	
		84.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다	3.71	1.24	
		85.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3.52	1.15	
		86.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3.75	1.11	
		87.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3.53	1.17	
		88.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3.47	1.23	
		89.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2.96	1.13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N=79)	평균	표준 편차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육비용 등)		
	사회적 유능감	90.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3.62	1.03
		91. 나에 대한 충고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4.10	0.90
		92.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3.23	1.13
		9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3.59	1.01
		94.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97	1.01
		95.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3.56	1.02
		96.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다	4.13	0.92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세부 내용 영역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부분의 세부 내용 영역에서 신뢰도 계수는 대부분 0.7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중독의 신뢰도는 0.44, 또래 관계는 0.58로 낮은 신뢰도가 산출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세부영역별 신뢰도

대영역	세부영역	문항수	α
I. 성격적 강점	자존감	7	0.85
	낙관성	5	0.83
	성실성	7	0.82
II. 심리 정서	우울·불안	12	0.91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8	0.81
	반항·품행	12	0.83
	망상·환청	3	0.85
	중독	4	0.44
	자살·자해	4	0.84
III. 환경	부모-자녀 관계	5	0.89
	또래 관계	6	0.58
	건강 및 기타	4	0.68

대영역	세부영역	문항수	α
IV. 유능감	학업 효능감	6(5)	0.87
	진로정보 탐색활동	6	0.88
	사회적 유능감	7	0.82

낮은 신뢰도가 산출된 중독 영역에 대해 문항 제거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중독 영역 문항 제거시 신뢰도

세부영역	문항	문항이 삭제된 경우 α
중독	55. 지난 3개월간 나는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0.41
	56.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0.48
	57.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0.31
	58.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0.33

이 결과에 따르면, 56번 문항을 삭제할 경우 기존의 신뢰도 보다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독 영역의 문항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상관계수, 신뢰도, 그리고 중독 영역의 문항 성격을 고려하면, 중독 영역은 척도가 아니라 개별 문항 수준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경우, ‘중독’ 문항은 ‘자살·자해’ 문항과 더불어 이분 문항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표 23> 중독 영역 문항간 상관계수

	문항59	문항60	문항61	문항62
문항59	1.00			
문항60	0.05	1.00		
문항61	0.30**	0.23*	1.00	
문항62	0.21	0.21	0.22	1.00

‘또래 관계’ 에서도 0.58의 낮은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표 24>는 문항 제거시 신뢰

도 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24> 또래 관계 영역 문항 제거시 신뢰도

세부영역	문항	문항이 삭제된 경우 α
또래 관계	68.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	0.49
	69.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역채점 적용	0.54
	70.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 역채점 적용	0.54
	71. 비행(술 및 담배, 약물, 폭력 등)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다	0.56
	72.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왕따나 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 있다	0.54
	73.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 있다	0.55

이 결과에 따르면, 개별 문항을 제거해도 이 영역의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래 관계’의 문항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또래 관계’ 영역의 문항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또래 관계 영역 문항간 상관계수

	문항68	문항69	문항70	문항71	문항72	문항73
문항68	1.00					
문항69	0.54	1.00				
문항70	0.42	0.55	1.00			
문항71	0.45	0.50	0.67	1.00		
문항72	0.41	0.49	0.59	0.72	1.00	
문항73	0.42	0.52	0.64	0.68	0.66	1.00

이 척도의 문항을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 안에서 해당 역량들에 대한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세부 영역인 성격적 강점에 대한 표본적합도(KMO 검정)는 0.859로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 = 846.36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이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6> 성격강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증	0.85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Approx χ^2	846.363
	자유도(df)	171
	p	0.000

성격적 강점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된 분산 비율은 약 54%이었다. 주축요인추출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한 후 사교 회전(즉, promax방법 사용)하여 요인의 패턴 행렬을 산출하였다. 이 패턴 행렬에서 ‘자존감’ 과 ‘낙관성’ 은 구분되지 않는 단일 영역으로 나타났다. ‘성실성’ 은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성격강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2	3
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769	.119	-.100
2. 나는 좋은 인성을 가졌다	.493	.089	.169
3.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790	.376	-.417
4.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339	.276	.086
5.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850	-.021	.002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	.419	.108	.329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567	-.039	-.105
8.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821	-.056	.016
9. 어려움이 닥쳐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821	-.248	.064
10.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일처럼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725	-.173	.048
11.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나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675	-.123	.269
12. 나는 새로운 과제나 일을 시작할 때,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88	.213	.235
13. 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	-.113	.004	.807
14. 나는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261	1.014	.013
15. 어떤 일이나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한다	.051	.776	.022
16.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057	.657	.139

문항	요인		
	1	2	3
17. 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치려고 노력한다	.061	.350	.320
18. 재미있어도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016	.031	.526
19.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096	.233	.549

두 번째 세부 영역인 심리정서의 표본적합도 또한 0.813으로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chi^2=1523.974(p=0.000)$ 로 유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28> 심리정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증	0.813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Approx χ^2	1523.974
	자유도(df)	465
	p	0.000

심리정서 영역의 경우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은 전체 분산의 약 54%였다. 주축요인추출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사교회전(promax)을 한 후 패턴 행렬을 검토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을 해당 요인으로 구분한 결과, ‘우울·불안’의 문항 중 23번, 25번, 그리고 31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개 문항은 하나의 요인에 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 영역은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망상·환청’에서는 3개 문항 중 54번 문항이 나머지 두 문항과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중독’ 문항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해’ 문항들은 한 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표 29> 심리정서 영역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2	3	4	5
20. 지난 1개월간 나는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803	.118	-.115	.038	-.036
21. 지난 1개월간 나는 이유 없이 자주 눈물이 난다	.538	.389	-.103	-.041	-.094
22. 지난 1개월간 나는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645	.156	-.171	.041	.105

문항	요인				
	1	2	3	4	5
23. 지난 1개월간 나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294	-.031	.244	.003	.224
24. 지난 1개월간 나는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493	.131	.122	-.158	-.001
25. 지난 1개월간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230	.730	.007	.162	-.192
26. 지난 1개월간 나는 걱정이 많다	.809	-.240	-.104	.112	.056
27. 지난 1개월간 나는 늘 긴장되어 있다	.939	-.228	.092	-.111	.029
28. 지난 1개월간 나는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764	-.012	.091	-.001	-.052
29. 지난 1개월간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884	-.023	.055	-.044	-.044
30. 지난 1개월간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352	.107	.374	.186	-.136
31. 지난 1개월간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195	.157	.169	.188	.110
32.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094	.226	.357	.244	-.145
33.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106	-.040	.575	.119	.174
34.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090	-.069	.732	-.166	-.059
35.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021	-.016	.752	.034	-.159
36.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104	.072	.467	.110	.019
37.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얘기한다	-.037	.047	-.095	.832	.193
38.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151	.032	.203	.429	.018
39.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024	-.235	.247	.591	.073
52.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081	.514	.211	-.205	.322
53.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138	.558	-.132	-.018	.416
54.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045	.149	-.006	.103	.693
55. 지난 3개월간 나는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294	.260	-.002	-.063	.199
56.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244	.123	.506	.147	.027
57.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024	-.108	-.112	.164	.867
58.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89	.608	.079	.053	.062
59.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072	.902	-.242	.167	-.173

문항	요인				
	1	2	3	4	5
60. 지난 3개월간 나는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74	.868	.113	-.111	-.067
61.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92	.925	.087	-.049	.060
62.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다	.126	.608	.077	-.175	.068

세 번째 세부 영역인 환경에서 표본적합도(KMO)는 0.739로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chi^2=625.918$ 로 유의하였다($p=0.000$).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30> 환경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증	0.73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Approx χ^2	625.918
	자유도(df)	105
	p	0.000

환경 영역에서는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세 요인이 전체 분산의 약 49%를 설명하였다. 주축요인추출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사교회전(promax)하여 산출된 패턴 행렬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관계’의 5개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또래 관계’의 경우 전체 6개 문항 중에서 3개 문항만이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묶였다. ‘건강 기타’에서는 전체 4개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으며, 2개 문항은 ‘부모-자녀 관계’ 요인에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환경영역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2	3
6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928	-.075	-.026
6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631	-.024	.216
65.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844	.039	-.135
66.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	.843	.003	-.005
6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809	.044	-.101
68.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	.122	.280	.385
69.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080	-.006	.619
70.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	-.005	.116	.710
71. 비행(술 및 담배, 약물, 폭력 등)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다	-.196	.826	.021
72.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왕따나 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 있다	.336	.260	.147
73.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 있다	-.030	.599	-.057
7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751	-.166	-.052
75.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289	.247	.077
76.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다	.489	-.049	.284
77. 술에 취한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다	.337	.516	-.150

마지막 영역인 유능감의 표본적합도(KMO)는 0.812로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779.096$ 으로 유의하였다(p=0.000).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32> 유능감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81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χ^2	779.096
	자유도(df)	153
	p	0.000

유능감 세부 영역에서는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세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52%

를 설명하였다. 사교회전(promax) 방법을 적용 후 산출된 패턴 행렬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업 효능감’ 은 6개 문항, ‘진로정보 탐색 활동’ 6개 문항, ‘대인관계 유능감’ 7개 문항이 의도한 바와 같은 요인에 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유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2	3
78.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101	.341	.425
79.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	-.043	.127	.779
80. 나는 내가 세운 학습계획을 실천한다	-.140	-.046	.987
81.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166	-.166	.701
83.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215	.063	.535
84.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다	.575	.015	.121
85.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857	.070	-.156
86.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812	-.051	-.043
87.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712	.117	.024
88.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772	-.017	.047
89.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육비용 등)	.596	-.085	.109
90.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107	.701	-.060
91. 나에 대한 충고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050	.493	.059
92.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070	.355	-.015
93.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092	.738	-.030
94.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02	.885	-.061
95.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032	.576	-.004
96.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다	.032	.665	.071

3) 13세 이상 청소년용 척도 본조사 문항 선정

전체 척도의 측정영역에서 성격적 강점 요인과 유능감 요인을 묶어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청소년 자립역량 척도(13~24세용)¹⁾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우울 및 불안,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반항·폭행, 망상·환청·환시, 중독, 그리고 자살·자해 요인을 묶어 다른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고, 그 명칭을 심리정서·환경

1) 영문 명칭을 ACCS(Adolescent Core Competencies Scale)라고 하였음

척도(13~24세)²⁾로 하였다. 이렇게 측정영역을 구분하여 두 개의 척도로 분할 한 데에는 척도의 활용 방법 및 실시 시점이 고려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립역량 척도(13~24세용)의 본조사 문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성격적 강점의 세 요인 중 자존감과 성실성 요인은 유지하고 낙관성 요인은 제거하기로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자존감과 낙관성이 동일 요인에 부하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존감 요인의 7개 문항 중 8번(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은 요인부하량이 .4에 미치지 못하였고, 10번(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은 교차부하량이 .10 이하여서 제거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예비분석 참여자의 수가 적어서 그 결과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지해 보기로 하였다. 셋째, 성실성 요인에서는 17번 문항(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치려고 노력한다)을 제거하였다. 17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교차부하량이 문항 선정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3번, 18번, 19번 문항은 나머지 네 문항과는 다른 요인을 형성하였다. 이 문항 중 13번(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은 규칙준수를 나타내고, 19번(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은 책임감 및 끈기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일단 유지하기로 하였다. 18번 문항(재미있어도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은 자기통제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동일 내용의 다른 문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거하기로 하였다. 넷째, 유능감의 세 요인은 모두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세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도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유능감 요인의 문항 92번(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은 요인 부하량이 .4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유지해 보기로 하였다. <표 34>는 자립역량 척도(13~24세용)의 본조사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 34> 자립역량 척도(13~24세용) 본조사 문항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성격강점
자존감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2	나는 좋은 인성을 가졌다
	3	나는 능력있는 사람이다
	4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5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2) 영문 명칭을 AST(Adolescent at risk Screening Tool)라고 하였음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성실성	8	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
	9	나는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10	어떤 일이나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한다
	11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12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유능감
학업 효능감	13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14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
	15	나는 내가 세운 학습계획을 실천한다
	16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17	나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다
	18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진로정보 탐색활동	19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다
	20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1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22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23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24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육비용 등)
대인관계 유능감	25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26	나에 대한 충고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27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28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29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0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31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다

심리정서·환경 척도(13~24세용)의 본조사 문항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우울 및 불안 요인에서는 25번 문항(‘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이 유지되었다. 25번 문항은 자살 사고를 나타내는데, 의도된 요인이 아닌 다

른 요인에 높이 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내용이 자살·자해 요인의 문항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23번 문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 문항은 수면의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31번 문항(‘지난 1개월간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은 강박 증상을 나타내는데, 어느 요인에도 의미 있게 부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강박 증상은 우울 및 불안과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그 자체로 증상 유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둘째, 과잉행동·주의 집중·충동성 요인에서는 모든 문항이 유지되었다. 의도된 요인에 모두 높이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반항·품행, 망상·환청, 중독, 자살·자해 영역에서는 요인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문항을 유지하되, 증상 유무를 평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환경 영역의 부모-자녀 관계(학대 및 방임), 또래 관계, 건강 및 기타 요인의 문항들도 요인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 유무를 평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부모-자녀 관계 요인에서 66번(‘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은 65번(‘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과, 그리고 67번(‘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은 63번(‘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과 내용상 중복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거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또래 관계 요인에서는 68번, 71번, 72번, 73번 문항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68번 문항(‘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내고 있다’)은 69번 문항과 유사한 내용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71번 문항(‘비행(술 및 담배, 약물, 폭력 등)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다’)은 내용의 모호함(즉,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72번 문항(‘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왕따나 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 있다’)과 73번 문항(‘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 있다’)은 폭력피해 경험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의 피해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실무자들의 자문 의견에 따라 여기서는 삭제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Information on youth Checklist; ICL)를 통해 이 경험 여부를 묻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는 접수면접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 제작한 것이다. <표 35>는 심리정서·환경 척도(13~24세용)의 본조사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 35> 심리정서·환경 척도(13~24세용) 본조사 문항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심리정서	
우울·불안	1	지난 1개월 간 나는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2	지난 1개월 간 나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3	지난 1개월 간 나는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4	지난 1개월 간 나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5	지난 1개월 간 나는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6	지난 1개월 간 나는 걱정이 많다	
	7	지난 1개월 간 나는 늘 긴장이 된다	
	8	지난 1개월 간 나는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9	지난 1개월 간 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10	지난 1개월 간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11	지난 1개월 간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12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13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14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15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16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17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말한다	
	18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19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반항·품행	20	윗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21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22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23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24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	
	25	나는 성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다	
망상·환청·환시	26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27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28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중독	29	지난 3개월간 나는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30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31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32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자살·자해	33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
		지난 3개월간 나는 몇 번 자살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34	지난 3개월간 나는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 있다
		지난 3개월간 나는 몇 번 자살을 계획해 보았습니까?
	35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 있다
		지난 3개월간 나는 몇 번 자살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36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 있다	
	지난 3개월간 나는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몸에 몇 번 상처를 내었습니까?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환경
부모-자녀 관계	3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38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39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도래관계	42	내게는 속마음(고민)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43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
건강·기타	45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46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47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다
	48	나는 진단받은 신체·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
	49	술에 취한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다

나. 9~12세 청소년용 예비조사 척도 분석결과

1) 역량별 기술통계 및 문항분석

예비조사용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를 실시하고,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성별 빈도

구분	빈도	비율
남자	46	49.5
여자	47	50.5
전체	93	100.0

예비조사용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의 세부 영역은 ‘성격적 강점’, ‘심리정서’, ‘환경’, ‘유능감’이다. 이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37>에 제시하였다. ‘환경’ 영역의 42번 문항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다’는 역채점되었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세부 내용 영역에 대한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대부분의 세부 내용 영역에서 신뢰도 계수는 0.7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낙관성의 신뢰도는 0.58, 또래 관계는 0.28로 낮았다.

<표 37> 문항별 기술통계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N=93)	평균	표준편차
1. 성격적 강점	자존감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3.80	0.95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3.37	1.09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4.04	0.91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4.08	0.84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3.75	1.20
	낙관성	6.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3.76	0.93
		7.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02	0.85
		8. 어려울 때,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4.25	0.86
	성실성	9.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3.77	0.98
		10.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게 한다	3.58	1.04
		11.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3.59	1.16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N=93)	평균	표준편차
II. 심리정서	우울 불안	1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1.94	1.05
		13. 나는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2.57	1.29
		14.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2.62	1.15
		15. 나는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10	1.22
		16. 나는 걱정이 많다	3.24	1.31
		17.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다	2.83	1.32
		18. 나는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2.55	1.34
		19. 죽고 싶은 마음이다	1.67	1.03
		20. 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1.71	1.11
	과잉 행동 주의 집중 증동	21.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2.57	1.26
		22.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2.31	1.30
		23.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2.43	1.17
		24.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2.96	1.26
		25. 잘 다친다	2.76	1.20
		26.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1.95	1.12
		27.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2.31	1.21
	반항· 품행	28.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 대부분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1.92	1.00
		29.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1.86	0.90
		30. 나는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 자주 거짓말을 한다	2.39	1.12
		31.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1.37	0.83
중독	32.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83	1.15	
	33.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60	0.97	
III. 환경	부모-자녀 관계	34.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나를 때린다	1.34	0.79
		35.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	1.54	0.98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N=93)	평균	표준편차
		36.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며칠씩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길 때가 있다	1.24	0.65
		37.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1.23	0.66
	또래 관계	38.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다. 역채점 반영	2.22	1.28
		39.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1.54	0.98
		40. 다른 아이들이 나만 빼고 노는 것 같다	1.65	0.92
	IV. 자기유능감	학업 효능감	4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3.74
42.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85	0.97
43.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3.71	1.05
사회적 유능감		44.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3.92	0.96
		45.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4.25	0.96
		46.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3.99	1.02
		47. 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4.15	0.88

낮은 신뢰도가 산출된 ‘낙관성’에 대해 문항 제거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세부영역별 신뢰도

대영역	세부영역	문항수	α
I. 성격강점	자존감	5	0.77
	낙관성	3	0.58
	성실성	3	0.74
II. 심리 정서	우울 불안	9	0.85
	과잉행동 주의집중 총동	7	0.83
	반항 품행	4	0.75
	중독	2	0.82
III. 환경	부모-자녀 관계	4	0.87
	또래 관계	3	0.28

대영역	세부영역	문항수	α
IV. 자기유능감	학업 효능감	3	0.80
	사회적 유능감	4	0.82

<표 39>를 살펴보면, 7번 문항이 낙관성 영역의 전체 신뢰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낙관성의 문항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9> 낙관성 영역 문항 제거시 신뢰도

세부영역	문항	문항이 삭제된 경우 α
낙관성	6.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0.58
	7.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0.29
	8. 어려울 때,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0.55

<표 40>은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7번 문항의 경우 두 문항과 모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갖지만, 6번과 8번 문항 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다. 이들 문항을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이분 문항으로 묻고 빈도만 산출할 계획이라면 무관하지만, 리커트 척도로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 구인을 측정하려면 ‘낙관성’의 정의를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40> 낙관성 영역 문항간 상관계수

	문항10	문항11	문항12
문항6	1.00		
문항7	0.38**	1.00	
문항8	0.17	0.41**	1.00

신뢰도 계수가 0.28인 ‘또래 관계’에서 문항 제거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1>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38번 문항을 삭제하면, 신뢰도 계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의미에서 신뢰도는 낮다.

<표 41> 또래 관계 영역 문항 제거시 신뢰도

세부영역	문항	문항이 삭제된 경우 α
또래 관계	38.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다	0.51
	39.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
	40. 다른 아이들이 나만 빼고 노는 것 같다	0.20

‘또래 관계’의 문항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39번 문항과 40번 문항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 또한 38번 문항은 39번 문항 및 40번 문항과 부적 상관을 갖는다. 이 문항들 역시 현황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이분 문항으로 묻고 응답별 빈도만 산출할 계획이라면 무관하지만,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면서 동일 구인을 측정하려면 ‘또래 관계’의 정의를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42> 또래관계 영역 문항간 상관계수

	문항38	문항39	문항40
문항36	1.00		
문항39	0.11	1.00	
문항40	-0.05	0.35**	1.00

이 척도를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인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세부 영역인 성격적 강점의 표본적합도(KMO)는 0.839로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chi^2=357.476$ 로 유의하였다($p=0.000$).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43> 성격적 강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83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x^2	357.476
	자유도(df)	55
	p	0.000

성격적 강점 영역에서는 3개의 세부 내용 요인이 추출되었다. 주축요인 분해법으로 추출된 이 세 요인은 전체 분산은 약 52%를 설명하였다. 사교회전(promax)을 한 후 산출된 패턴 행렬을 검토한 결과, ‘자존감’ 과 ‘성실성’ 요인의 문항들은 의도한 대로 각각의 요인에 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도 분석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던 ‘낙관성’ 문항들은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성격적 강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2	3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1.019	-.251	.060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427	.269	-.105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427	.055	.152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577	.181	.070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547	.008	.113
6.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741	.102	-.201
7.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74	.319	.236
8. 어려울 때,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012	-.007	.901
9.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099	.695	.074
10.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한다	-.015	.685	.108
11.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099	.729	-.172

두 번째 세부 영역인 심리정서에서 표본적합도(KMO)는 0.865로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chi^2=1054.625$ 로 유의하였다($p=0.000$).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45> 심리정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증	0.86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Approx χ^2	1054.625
	자유도(df)	231
	p	0.000

심리정서 영역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주축요인분해법으로 추출된 4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53%를 설명하였다. 사교회전(promax)을 실시하여 산출한 패턴 행렬을 검토한 결과, ‘우울·불안’은 전체 9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동일 요인에 높게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의 2개 문항은 의도한 바와 같이 하나의 요인에 부하되었으나, ‘반항·품행’의 4개 문항 중 2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에 부하되고, 나머지 2개 문항은 ‘중독’에 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심리정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2	3	4
1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081	-.036	.305	.310
13. 나는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086	-.171	.597	.026
14.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072	.317	.582	.141
15. 나는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36	-.099	.534	.404
16. 나는 걱정이 많다	-.214	-.033	.842	-.016
17.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다	-.127	.130	.748	.086
18. 나는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187	-.136	.392	.185
19. 죽고 싶은 마음이다	.117	-.072	.234	.621
20. 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194	.150	-.004	.493
21.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703	-.002	-.133	.111
22.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873	-.086	-.179	.038
23.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282	.248	.214	.045
24.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520	.223	.295	-.358
25. 잘 다친다	.617	-.088	.134	.006
26.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275	.490	.034	.159
27.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479	.087	.035	.027
28.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 대부분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553	.074	-.035	.380
29.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570	-.090	-.071	.310
30. 나는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 자주 거짓말을 한다	.356	.488	-.007	-.017
31.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171	.730	-.203	.427
32.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089	.712	.004	-.072

문항	요인			
	1	2	3	4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33.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80	1.046	-.029	-.054

환경 영역은 표본적합도(KMO)가 .795로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chi^2=287.865$ 로 유의하였다($p=0.000$). 이 결과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47> '환경'의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증	0.79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Approx χ^2	287.865
	자유도(df)	21
	p	0.000

'환경'에서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두 요인이 설명하는 전체 분산의 비율은 약 49%이었다. 산출된 패턴 행렬을 검토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 4개 문항은 의도한 요인에 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 관계'의 문항들은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단일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표 48> '환경'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2
34.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나를 때린다	.678	.109
35.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	.762	-.100
36.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며칠씩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길 때가 있다	.888	.013
37.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859	-.006
38.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023	.504
39.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531	.113

문항	요인	
	1	2
40. 다른 아이들이 나만 빼고 노는 것 같다	.497	-.130

마지막으로 유능감 영역에서 표본적합도(KMO)는 0.828로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chi^2=303.048$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0$). 이 결과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49> 유능감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및 구형성 검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증	0.82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Approx χ^2	303.048
	자유도(df)	21
	p	0.000

유능감 영역에서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두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57%를 설명하였다. 산출된 패턴 행렬을 검토한 결과, ‘학습 효능감’의 문항들과 ‘사회적 유능감’의 문항들은 의도한 요인에 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유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2
4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261	.567
42.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54	.565
43.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191	.851
44.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672	.055
45.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741	-.037
46.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867	-.105
47. 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676	.046

3) 9~12세 청소년용 척도 본조사 문항 선정

전체 척도의 측정영역에서 성격적 강점 영역과 자립역량 영역을 묶어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자립역량 척도(9~12세용)³⁾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우울 및 불안,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반항·품행, 그리고 중독 영역을 묶어 다른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고, 그 명칭을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⁴⁾로 하였다. 이렇게 측정영역을 구분하여 두 개의 척도로 분할 한 데는 척도의 활용 방법 및 시기, 아동에게 척도를 실시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의 내용, 그리고 한 번에 실시할 수 있는 적정한 문항의 수가 고려되었다.

9~12세 청소년용 척도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립역량 척도(9~12세용)의 최종 문항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첫째, 성격적 강점 영역의 낙관성 요인은 제거하기로 하였다. 낙관성 요인은 신뢰도가 낮았으며, 요인분석 결과 낙관성의 세 문항이 각기 다른 요인에 부하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둘째, 성격적 강점 영역의 자존감 및 성실성 요인에서는 모든 문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두 요인 모두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각각의 문항이 의도한 요인에 부하 되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효능감 영역의 학업 효능감 요인에서도 모든 문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유능감 영역의 47번 문항(‘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은 제거하기로 하였다. 45번 문항(‘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과 내용 중복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척도의 본조사 문항을 <표 51>에 제시하였다.

<표 51> 자립역량 척도(9~12세용) 본조사 문항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성격적 강점
자존감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3)영문 명칭을 CCCS(Child Core Competencies Scale)라고 하였음

4)영문 명칭을 CST(Child at risk Screening Tool)라고 하였음

성실성	6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7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한다
	8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유능감
학업 효능감	9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10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
	11	나는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	12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13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14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다음으로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의 최종 문항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우울·불안’에서 12번 문항(‘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4 이하였으며, 교차 부하량도 .1 이하였기 때문이다. 이 요인의 나머지 문항은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진술문에 ‘요즘 나는’을 추가하였다. 둘째,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에서는 26번 문항(‘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의도한 요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반항·품행’ 및 ‘중독’ 문항들은 증상 유무를 평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문항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요인 분석으로 단일 요인을 기대하기에는 이질적인 문항 내용이기도 하고, 해당 문항이 모두 아동의 위험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요인에서 28번 문항(‘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 대부분이 부당하게 느껴진다’)은 제거하기로 하였다. 29번 문항과 내용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30번 문항은 진술을 수정하여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나는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 자주 거짓말을 한다’ → ‘나는 자주 거짓말을 한다’). ‘중독’의 두 문항은 모두 유지하기로 하였다. 넷째, ‘환경’의 문항들도 모두 환경적 위험 요인의 유무를 판단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36번 문항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36번 문항(‘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며칠씩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길 때가 있다’)은 37번 문항과 중복(방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4번 문항은 일부 진술을 수정하였다(‘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나를 때린다’ → ‘부모님은 종종 나를 때린다’). 35

번 문항도 진술을 수정하였다(‘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화가 나면 내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한다’ →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게 소리를 지른다’)은 34번 문항과 중복(학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래 관계 요인에서는 40번 문항(‘다른 아이들이 나만 빼고 노는 것 같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문항 39번(‘니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과 내용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척도의 본조사 문항을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2> 심리정서·환경 특성 척도(9~12세용) 본조사 문항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심리정서	
우울·불안	1	요즘 나는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2	요즘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3	요즘 나는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4	요즘 나는 여러 가지 일에 걱정이 많다	
	5	요즘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다	
	6	요즘 나는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7	요즘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다	
	8	요즘 나는 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9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10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11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12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13	잘 다친다	
	14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반항·품행	15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16	나는 자주 거짓말을 한다	
	17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중독	18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9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환경	

부모·자녀 관계	20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종종 나를 때린다
	21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또래 관계	22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23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5. 본조사

가. 조사대상

13세 이상 청소년용 척도 및 9~12세 청소년용 척도의 타당성 및 문항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조사 문항을 선정한 후, 이를 실시하였다. 9~12세 청소년용 척도의 본조사에는 일반 초등학교 4, 5, 6학년 60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70명이 참여하였다. 13세 이상 청소년용 척도의 본조사에는 일반 중학생(78명)과 고등학생(100명) 178명,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청소년 140명(중학생 연령 70명 및 고등학생 연령 70명)이 참여하였다.

나. 조사방법

본조사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았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2개교, 대구광역시의 중학교 1개교 및 고등학교 1개교로부터 협조를 받았다. 이들 기관에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로부터는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4,000원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제공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는 인터넷 링크를 받아 구글폼으로 작성된 질문 문항에 접속하여 응답하였다.

다. 분석방법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사 양호도(문항 분석, 검사 신뢰도 및 검사 타당도)부터 검토하였다. 문항 분석(item analysis)을 위해, 문항 난이도, 문항별 반응

분포, 문항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별 변별도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적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검사의 측정영역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후, χ^2 , GFI(Goodness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여 설정한 모델과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GFI와 TLI는 비교적합지수에 해당하며 0~1.0 사이의 값을 갖는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RMSEA는 표본 크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RMSEA의 지수가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 때는 양호한 적합도, .10이하일 때는 보통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6. 본조사 분석결과

가. 본조사용 심리정서·환경 척도(13세~24세용) 분석 결과

1) 영역별 기술통계 및 문항 분석

본조사용 심리정서·환경 척도(13세~24세용)를 실시하고, 성별 및 소속에 따른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53>와 같다. 남녀의 비율은 각각 31.1%와 68.9%이었다. 그리고 소속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과 일반 학생의 비율이 각각 44.0%와 56.0%이었다. 또한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은 46.5%였으며, 고등학생 연령 청소년은 53.5%였다.

<표 53> 성별 및 소속 빈도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9	31.1
	여자	219	68.9
소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40	44.0
	학교	178	56.0
연령대	중학생 연령	148	46.5
	고등학생 연령	170	53.5
전체		318	100.0

본조사 척도의 세부 영역은 크게 4개로, ‘성격적 강점’, ‘심리정서’, ‘환경’, ‘유능감’ 으로 구성되었다. ‘환경’ 에서 53번 문항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와 54번 문항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 는 역채점 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54>과 같다.

<표 54> 문항별 빈도(%)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격적 강점	자존감	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4 (1.26)	10 (3.14)	69 (21.70)	119 (37.42)	116 (36.48)
		2. 나는 좋은 인성을 가졌다	2 (0.63)	13 (4.09)	87 (27.36)	124 (38.99)	92 (28.93)
		3.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5 (1.57)	36 (11.32)	95 (29.87)	91 (28.62)	91 (28.62)
		4.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5 (1.57)	20 (6.29)	72 (22.64)	120 (37.74)	101 (31.76)
		5.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5 (1.57)	6 (1.89)	50 (15.72)	99 (31.13)	158 (49.69)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	1 (0.31)	16 (5.03)	72 (22.64)	109 (34.28)	120 (37.74)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12 (3.77)	50 (15.72)	120 (37.74)	78 (24.53)	58 (18.24)
	성실성	8. 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	3 (0.94)	9 (2.83)	41 (12.89)	148 (46.54)	117 (36.79)
		9. 나는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9 (2.83)	56 (17.61)	90 (28.30)	98 (30.82)	65 (20.44)
		10. 어떤 일이나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한다	12 (3.77)	52 (16.35)	100 (31.45)	80 (25.16)	74 (23.27)
		11.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	25 (7.86)	79 (24.84)	69 (21.70)	74 (23.27)	71 (22.33)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을 세워서 실행한다					
		12. 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치려고 노력한다	10 (3.14)	23 (7.23)	68 (21.38)	134 (42.14)	83 (26.10)
		13.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3 (0.94)	2 (0.63)	55 (17.30)	143 (44.97)	115 (36.16)
II. 심리정서	우울 불안	14.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66 (20.75)	64 (20.13)	80 (25.16)	75 (23.58)	33 (10.38)
		15. 이유 없이 자주 눈물이 난다	127 (39.94)	103 (32.39)	42 (13.21)	34 (10.69)	12 (3.77)
		16.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114 (35.85)	74 (23.27)	55 (17.30)	53 (16.67)	22 (6.92)
		17.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127 (39.94)	79 (24.84)	45 (14.15)	38 (11.95)	29 (9.12)
		18.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132 (41.51)	77 (24.21)	51 (16.04)	43 (13.52)	15 (4.72)
		19. 나는 걱정이 많다	68 (21.38)	53 (16.67)	59 (18.55)	89 (27.99)	49 (15.41)
		20. 늘 긴장되어 있다	98 (30.82)	92 (28.93)	65 (20.44)	40 (12.58)	23 (7.23)
		21.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104 (32.70)	104 (32.70)	53 (16.67)	40 (12.58)	17 (5.35)
		22.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113 (35.53)	86 (27.04)	44 (13.84)	54 (16.98)	21 (6.60)
		23.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101 (31.76)	65 (20.44)	63 (19.81)	60 (18.87)	29 (9.12)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161 (50.63)	96 (30.19)	36 (11.32)	16 (5.03)	9 (2.83)
		25.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145 (45.60)	83 (26.10)	44 (13.84)	37 (11.64)	9 (2.83)
		26.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145 (45.60)	103 (32.39)	43 (13.52)	24 (7.55)	3 (0.94)
		27.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109 (34.28)	83 (26.10)	58 (18.24)	53 (16.67)	15 (4.72)
	과잉 행동	2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104 (32.70)	93 (29.25)	66 (20.75)	46 (14.47)	9 (2.83)
	주의 집중	29.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77 (24.21)	99 (31.13)	74 (23.27)	55 (17.30)	13 (4.09)
	충동	30.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얘기한다	112 (35.22)	106 (33.33)	55 (17.30)	32 (10.06)	13 (4.09)
		31.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65 (20.44)	62 (19.50)	73 (22.96)	76 (23.90)	42 (13.21)
		32.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66 (20.75)	79 (24.84)	91 (28.62)	58 (18.24)	24 (7.55)
	반항	33.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125 (39.31)	103 (32.39)	61 (19.18)	16 (5.03)	13 (4.09)
	품행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235 (73.90)	59 (18.55)	14 (4.40)	8 (2.52)	2 (0.63)
		35.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205 (64.47)	73 (22.96)	25 (7.86)	12 (3.77)	3 (0.94)
		36.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187 (58.81)	96 (30.19)	25 (7.86)	7 (2.20)	3 (0.94)
		37.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이 있다	233 (73.27)	66 (20.75)	14 (4.40)	3 (0.94)	2 (0.63)
		38. 나는 성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다	244 (76.73)	47 (14.78)	16 (5.03)	6 (1.89)	5 (1.57)
망상 환청		39.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226 (71.07)	71 (22.33)	11 (3.46)	9 (2.83)	1 (0.31)
		40.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238 (74.84)	57 (17.92)	16 (5.03)	4 (1.26)	3 (0.94)
		41.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233 (73.27)	58 (18.24)	20 (6.29)	6 (1.89)	1 (0.31)
중독		42.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276 (86.79)	31 (9.75)	9 (2.83)	1 (0.31)	1 (0.31)
		43.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215 (67.61)	52 (16.35)	34 (10.69)	14 (4.40)	3 (0.94)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III. 환경		44.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272 (85.53)	35 (11.01)	6 (1.89)	4 (1.26)	1 (0.31)
		45.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253 (79.56)	43 (13.52)	15 (4.72)	3 (0.94)	4 (1.26)
	자살 · 자해	46.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30 (72.33)	43 (13.52)	21 (6.60)	14 (4.40)	10 (3.14)
		47.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259 (81.45)	40 (12.58)	4 (1.26)	11 (3.46)	4 (1.26)
		48.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281 (88.36)	30 (9.43)	2 (0.63)	4 (1.26)	1 (0.31)
		49.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다	262 (82.39)	25 (7.86)	13 (4.09)	11 (3.46)	7 (2.20)
	부모- 자녀 관계	50.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224 (70.44)	61 (19.18)	25 (7.86)	6 (1.89)	2 (0.63)
		5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197 (61.95)	76 (23.90)	27 (8.49)	14 (4.40)	4 (1.26)
		5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270 (84.91)	37 (11.64)	8 (2.52)	3 (0.94)	0 (0.00)
또래 관계	53.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	80 (25.16)	101 (31.76)	71 (22.33)	38 (11.95)	28 (8.81)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 있다: 역채점 적용						
		54.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 역채점 적용	87 (27.36)	104 (32.70)	57 (17.92)	36 (11.32)	34 (10.69)	
	건강 · 기타	55.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202 (63.52)	75 (23.58)	28 (8.81)	11 (3.46)	2 (0.63)	
		56.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133 (41.82)	92 (28.93)	65 (20.44)	20 (6.29)	8 (2.52)	
		57.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147 (46.23)	82 (25.79)	57 (17.92)	29 (9.12)	3 (0.94)	
		58. 나는 진단 받은 신체·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	216 (67.92)	54 (16.98)	17 (5.35)	23 (7.23)	8 (2.52)	
		59. 술에 취한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다	249 (78.30)	51 (16.04)	8 (2.52)	8 (2.52)	2 (0.63)	
	IV. 유능감	학업 효능감	60.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16 (5.03)	32 (10.06)	114 (35.85)	104 (32.70)	52 (16.35)
			61.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	22 (6.92)	45 (14.15)	105 (33.02)	96 (30.19)	50 (15.72)
			62. 나는 내가 세운 학습계획을 실천한다	24 (7.55)	59 (18.55)	105 (33.02)	86 (27.04)	44 (13.84)
63.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20 (6.29)	62 (19.50)	105 (33.02)	85 (26.73)	46 (14.47)	
64. 나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다			18 (5.66)	15 (4.72)	72 (22.64)	104 (32.70)	109 (34.28)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5.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9 (2.83)	20 (6.29)	95 (29.87)	127 (39.94)	67 (21.07)
		66.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다	12 (3.77)	23 (7.23)	71 (22.33)	99 (31.13)	113 (35.53)
		67.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2 (6.92)	45 (14.15)	89 (27.99)	80 (25.16)	82 (25.79)
		68.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10 (3.14)	31 (9.75)	78 (24.53)	103 (32.39)	96 (30.19)
	진로 정보 탐색 활동	69.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18 (5.66)	46 (14.47)	84 (26.42)	82 (25.79)	88 (27.67)
		70.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23 (7.23)	53 (16.67)	80 (25.16)	86 (27.04)	76 (23.90)
		71.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육비용 등)	28 (8.81)	75 (23.58)	95 (29.87)	59 (18.55)	61 (19.18)
	사회적 유능감	72.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13 (4.09)	39 (12.26)	92 (28.93)	101 (31.76)	73 (22.96)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3. 나에 대한 충고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10 (3.14)	13 (4.09)	83 (26.10)	121 (38.05)	91 (28.62)
		74.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18 (5.66)	58 (18.24)	90 (28.30)	84 (26.42)	68 (21.38)
		75.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7 (2.20)	18 (5.66)	91 (28.62)	126 (39.62)	76 (23.90)
		76.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7 (2.20)	18 (5.66)	69 (21.70)	126 (39.62)	98 (30.82)
		77.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9 (2.83)	28 (8.81)	103 (32.39)	101 (31.76)	77 (24.21)
		78.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다	8 (2.52)	11 (3.46)	56 (17.61)	135 (42.45)	108 (33.96)

이 척도의 문항별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5번 문항이었다. 그리고 문항 변별도는 모든 문항에서 0.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5>은 본조사용 척도의 세부 내용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 변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5> 문항 평균 및 변별도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편차	변별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편차
I. 성격적 강점	자존감	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4.05	0.91	0.86	27.27	5.34
		2. 나는 좋은 인성을 가졌다	3.92	0.88	0.76		
		3.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3.71	1.05	0.86		
		4.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3.92	0.97	0.73		
		5.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4.25	0.90	0.81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변별 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 편차
II. 심리정서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	4.04	0.91	0.80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3.38	1.07	0.77		
	성실성	8. 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	4.15	0.82	0.70	22.35	4.88
		9. 나는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3.48	1.09	0.87		
		10. 어떤 일이나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한다	3.48	1.13	0.83		
		11.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3.27	1.27	0.81		
		12. 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치려고 노력한다	3.81	1.01	0.80		
		13.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4.15	0.79	0.74		
	우울 불안	14.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2.83	1.29	0.81	25.91	10.78
		15. 이유 없이 자주 눈물이 난다	2.06	1.14	0.78		
		16.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2.36	1.30	0.73		
		17.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2.25	1.33	0.79		
		18.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2.16	1.23	0.68		
19. 나는 걱정이 많다		2.99	1.39	0.84			
20. 늘 긴장되어 있다		2.36	1.24	0.84			
21.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2.25	1.19	0.82			
22.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2.32	1.29	0.83			
23.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2.53	1.35	0.81			
과잉 행동	24.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1.79	1.02	0.66	18.6	6.74	
	25.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2.00	1.15	0.65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변별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주의 집중 · 충동		26.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1.86	0.98	0.60	9.21	3.4
		27.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2.31	1.23	0.66		
		2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2.25	1.14	0.81		
		29.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2.46	1.15	0.78		
		30.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얘기한다	2.14	1.13	0.76		
		31.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2.90	1.33	0.78		
		32.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2.67	1.21	0.71		
반항 · 폭행		33.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2.02	1.08	-	9.21	3.4
		34.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1.37	0.74	-		
		35.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1.54	0.86	-		
		36.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1.56	0.81	-		
		37.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이 있다	1.35	0.67	-		
		38. 나는 성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다	1.37	0.80	-		
망상 · 환청 · 환시		39.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1.39	0.72	-	4.12	1.81
		40.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1.36	0.72	-		
		41.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1.38	0.72	-		
중독		42.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18	0.51	-	5.23	2.06
		43.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55	0.92	-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변별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 편차
		44.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20	0.56	-		
		45.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31	0.72	-		
	자살 · 자해	46.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53	1.01	-	5.34	2.64
		47.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1.31	0.77	-		
		48.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16	0.51	-		
		49.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 있다	1.35	0.89	-		
	III. 환경	부모- 자녀 관계	50.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1.43	0.77	-	4.22
5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1.59	0.91	-		
5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1.19	0.51	-		
또래 관계		53.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역채점 적용	2.47	1.23	-	7.07	2.25
		54.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 역채점 적용	2.45	1.29	-		
건강 · 기타		55.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1.54	0.84	-	8.36	3.26
		56.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1.99	1.05	-		
		57.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1.93	1.04	-		
		58. 나는 진단 받은 신체·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	1.59	1.04	-		
		59. 술에 취한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다	1.31	0.70	-		
IV. 유능감	학업 효능감	60.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3.45	1.04	0.78	20.79	5.12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변별 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 편차
		61.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	3.34	1.11	0.83		
		62. 나는 내가 세운 학습계획을 실천한다	3.21	1.13	0.82		
		63.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3.24	1.11	0.82		
		64. 나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다	3.85	1.12	0.70		
		65.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3.70	0.96	0.80		
	진로 정보 탐색 활동	66.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다	3.87	1.09	0.78	21.28	5.84
			3.49	1.21	0.85		
		67.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3.77	1.08	0.82		
		68.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3.55	1.20	0.87		
		69.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3.44	1.22	0.87		
		70.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3.16	1.23	0.79		
	71.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육비용 등)						
	사회적 유능감	72.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3.57	1.09	0.80	26.18	5.48
		73. 나에게 대한 충고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3.85	0.99	0.71		
		74.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3.40	1.17	0.73		
75.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3.77	0.95	0.80			
76.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91	0.97	0.78			
77.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3.66	1.03	0.78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변별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 편차
		78.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을 알고 있다	4.02	0.94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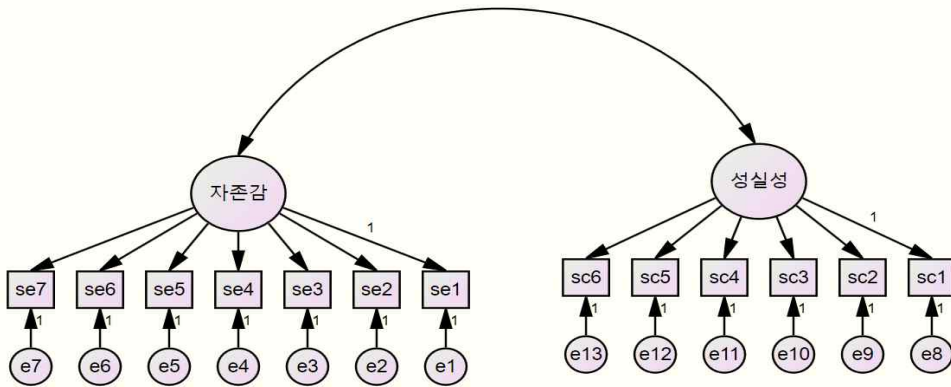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세부 내용 영역에 대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세부 내용 영역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모두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세부영역별 신뢰도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수	α
I. 성격강점	자존감	7	0.90
	성실성	6	0.88
II. 심리 정서	우울 불안	11	0.94
	과잉행동 주의집중 충동	8	0.87
	반항·품행	6	-
	망상 환청 환시	3	-
	중독	4	-
	자살 자해	4	-
III. 환경	부모-자녀관계	3	-
	또래 관계	2	-
	건강 기타	5	-
IV. 유능감	학업 효능감	6	0.88
	진로정보 탐색활동	6	0.91
	사회적 유능감	7	0.88

본조사용 척도의 문항을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 영역의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설정된 ‘성격적 강점’ 모형은 [그림 4]과 같다.



[그림 4] 성격적 강점 요인분석 모형

이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NFI, IFI, TLI, CFI는 0.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RMSEA는 0.10으로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57>는 성격적 강점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7> ‘성격적 강점’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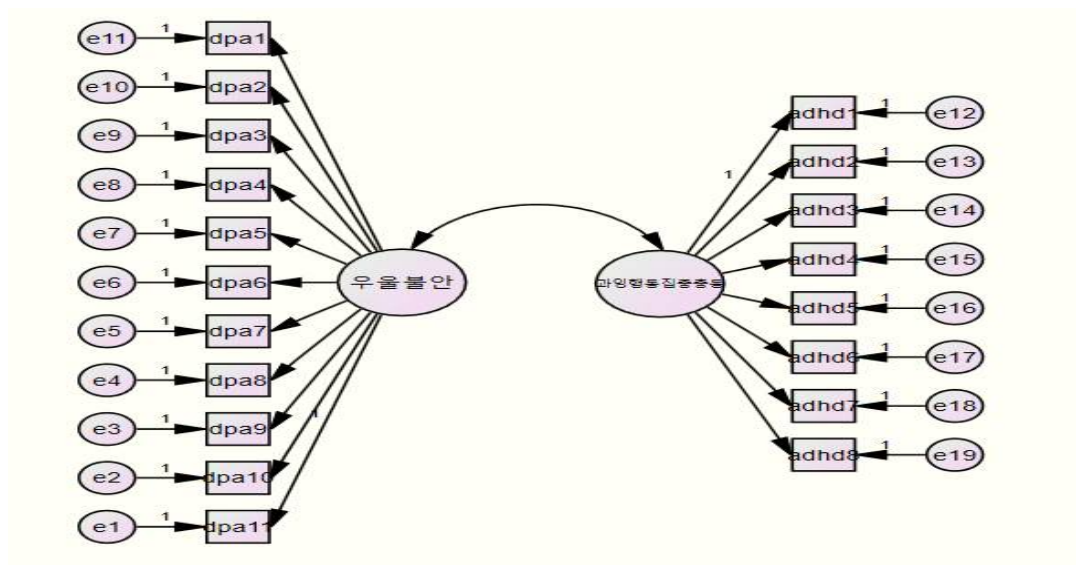
NFI	IFI	TLI	CFI	RMSEA
0.90	0.92	0.90	0.92	0.10

성격적 강점 모형에서 잠재변인과 관찰변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의 추정 결과는 <표 58>과 같다. 비표준화계수인 B값은 모든 문항에서 유의하였다. 표준화계수인 β 값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가 관찰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8> '성격적 강점'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세부 내용	문항	B	S.E.	C.R.	p	β
자존감	1	1.000				0.858
	2	0.822	0.055	14.973	<.001	0.725
	3	1.131	0.060	18.766	<.001	0.838
	4	0.818	0.063	13.089	<.001	0.658
	5	0.914	0.054	17.075	<.001	0.791
	6	0.891	0.056	16.027	<.001	0.759
	7	0.966	0.068	14.314	<.001	0.702
성실성	8	1.000				0.644
	9	1.789	0.142	12.618	<.001	0.869
	10	1.747	0.144	12.109	<.001	0.819
	11	1.729	0.158	10.945	<.001	0.718
	12	1.361	0.125	10.902	<.001	0.715
	13	1.043	0.098	10.690	<.001	0.698

다음으로 심리정서 영역의 모형은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심리정서'분석 모형

‘심리정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적합도의 지수가 0.90 이상이었다. 그러나 RMSEA 값은 .08로 ‘양호한’ 에 해당하였다. <표 59>은 ‘심리정서’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한 것이다.

<표 59> ‘심리정서’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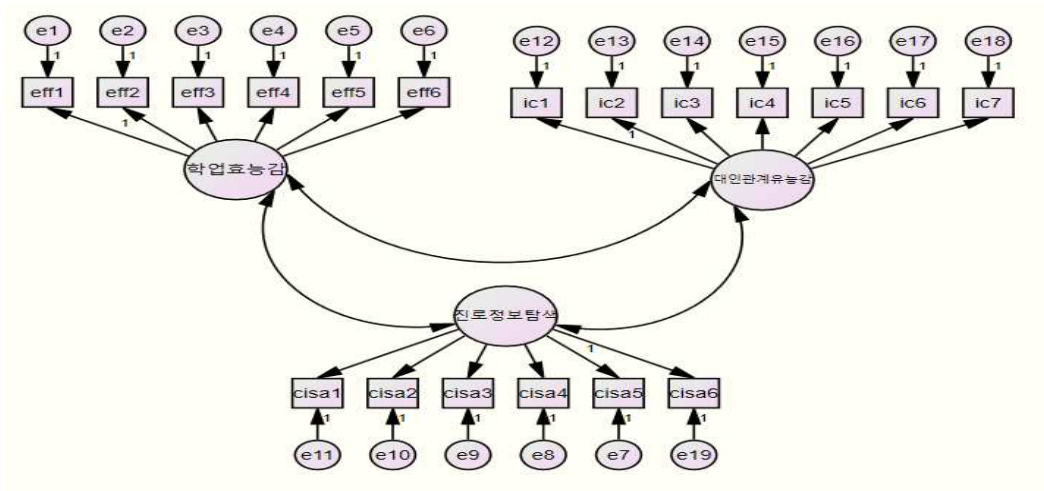
NFI	IFI	TLI	CFI	RMSEA
0.88	0.91	0.90	0.91	0.08

심리정서 영역의 모형에서 계수 추정 결과는 <표 60>와 같다. 모든 문항에서 비표준화계수인 B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표준화계수인 β 도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인 해당 세부 내용이 관찰변수인 각 문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60> ‘심리정서’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세부 내용	문항 번호	B	S.E.	C.R.	p	β
우울·불안	14	1.615	0.139	11.578	<.001	0.789
	15	1.352	0.122	11.116	<.001	0.746
	16	1.386	0.135	10.231	<.001	0.669
	17	1.556	0.142	10.980	<.001	0.734
	18	1.215	0.126	9.632	<.001	0.620
	19	1.821	0.152	11.960	<.001	0.826
	20	1.663	0.137	12.132	<.001	0.843
	21	1.548	0.130	11.876	<.001	0.818
	22	1.690	0.142	11.929	<.001	0.823
	23	1.723	0.147	11.741	<.001	0.804
	24	1.000				0.618
과잉행동· 주의집중· 충동	25	1.000				0.571
	26	0.779	0.101	7.712	<.001	0.521
	27	1.038	0.129	8.052	<.001	0.551
	28	1.428	0.137	10.443	<.001	0.819
	29	1.379	0.135	10.192	<.001	0.784
	30	1.207	0.127	9.505	<.001	0.700
	31	1.517	0.153	9.898	<.001	0.746
	32	1.216	0.133	9.149	<.001	0.660

마지막으로 ‘유능감’ 모형은 [그림 6]와 같다.



[그림 6] ‘유능감’분석 모형

‘유능감’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NFI를 제외한 적합도 지수는 0.9 이상으로 ‘좋은’에 해당하였다. NFI와 RMSEA는 ‘양호한’에 해당하는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61>은 ‘유능감’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한 것이다.

<표 61> ‘자립역량’ 모형 적합도

NFI	IFI	TLI	CFI	RMSEA
0.89	0.92	0.91	0.91	0.08

‘유능감’ 모형에서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 결과는 <표 62>와 같다. 모든 문항에서 비표준화계수인 B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준화계수인 β 값도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62> '자립역량'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세부 내용	문항 번호	B	S.E.	C.R.	p	β
학업효능감	60	1.000				0.743
	61	1.123	0.081	13.855	<.001	0.779
	62	1.139	0.082	13.887	<.001	0.781
	63	1.131	0.081	13.966	<.001	0.785
	64	0.870	0.083	10.515	<.001	0.602
	65	0.954	0.070	13.575	<.001	0.765
진로정보탐색 활동	66	0.774	0.052	14.745	<.001	0.727
	67	0.971	0.055	17.703	<.001	0.823
	68	0.826	0.050	16.472	<.001	0.785
	69	0.985	0.053	18.432	<.001	0.845
	70	1.000				0.840
	71	0.877	0.059	14.850	<.001	0.731
사회적 유능감	72	1.000				0.741
	73	0.816	0.070	11.676	<.001	0.671
	74	0.920	0.083	11.041	<.001	0.636
	75	0.906	0.067	13.579	<.001	0.774
	76	0.886	0.068	12.941	<.001	0.739
	77	0.951	0.072	13.124	<.001	0.749
	78	0.874	0.066	13.222	<.001	0.754

3) 소속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심리정서 영역 중 반항·품행, 망상·환청, 중독, 자살·자해, 그리고 환경 영역의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재분류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를 비동의로 보고 0으로, 동의에 해당하는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를 1로 재범주화 하였다. 분석 결과 37번 문항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42번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46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0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53번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의 문항에서 소속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는 청소년의 소속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3> 소속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소속	비동의	동의	집단간 차이
II. 심리정서	반항 · 품행	33.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학교 밖	92 (65.71%)	48 (34.29%)	$\chi^2=4.413$ p=.036
			학교	136 (76.40%)	42 (23.60%)	
		34.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학교 밖	130 (92.86%)	10 (7.14%)	$\chi^2=0.059$ p=.809
			학교	164 (92.13%)	14 (7.87%)	
		35.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학교 밖	122 (87.14%)	18 (12.86%)	$\chi^2=0.018$ p=.894
			학교	156 (87.64%)	22 (12.36%)	
		36.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학교 밖	123 (87.86%)	17 (12.14%)	$\chi^2=0.330$ p=.566
	학교		160 (89.89%)	18 (10.11%)		
	37.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이 있다	학교 밖	130 (92.86%)	10 (7.14%)	$\chi^2=0.607$ p=.436	
		학교	169 (94.94%)	9 (5.06%)		
	38. 나는 성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다	학교 밖	127 (90.71%)	13 (9.29%)	$\chi^2=0.204$ p=.6562	
		학교	164 (92.13%)	14 (7.87%)		
	망상 · 환청 · 환시	39.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학교 밖	127 (90.71%)	13 (9.29%)	$\chi^2=2.917$ p=.088
			학교	170 (95.51%)	8 (4.49%)	
40.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 밖	129 (92.14%)	11 (7.86%)	$\chi^2=0.145$ p=.703	
		학교	166 (93.26%)	12 (6.74%)		
41.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		학교 밖	126 (90.00%)	14 (10.00%)	$\chi^2=0.733$ p=.392	
		학교	165 (92.70%)	13 (7.30%)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소속	비동의	동의	집단간 차이
		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중독	42.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 밖	130 (92.86%)	10 (7.14%)	$\chi^2=10.163$ $p=.001$	
		학교	177 (99.44%)	1 (0.56%)		
	43.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 밖	118 (84.29%)	22 (15.71%)	$\chi^2=0.019$ $p=.889$	
		학교	149 (83.71%)	29 (16.29%)		
	44.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 밖	133 (95.00%)	7 (5.00%)	$\chi^2=1.778$ $p=.182$	
		학교	174 (97.75%)	4 (2.25%)		
	45.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 밖	129 (92.14%)	11 (7.86%)	$\chi^2=0.342$ $p=.558$	
		학교	167 (93.82%)	11 (6.18%)		
	자살 · 자해	46.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학교 밖	114 (81.43%)	26 (18.57%)	$\chi^2=4.023$ $p=.045$
			학교	159 (89.33%)	19 (10.67%)	
47.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학교 밖	128 (91.43%)	12 (8.57%)	$\chi^2=3.002$ $p=.083$	
		학교	171 (96.07%)	7 (3.93%)		
48.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학교 밖	135 (96.43%)	5 (3.57%)	$\chi^2=2.181$ $p=.140$	
		학교	176 (98.88%)	2 (1.12%)		
49.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학교 밖	122 (87.14%)	18 (12.86%)	$\chi^2=2.747$ $p=.097$	
		학교	165	13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소속	비동의	동의	집단간 차이
		상처를 낸 적 있다		(92.70%)	(7.30%)	
III. 환경	부모-자녀 관계	50.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교 밖	119 (85.00%)	21 (15.00%)	$\chi^2=5.747$ $p=.017^*$
			학교	166 (93.26%)	12 (6.74%)	
		5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학교 밖	119 (85.00%)	21 (15.00%)	$\chi^2=0.148$ $p=.700$
			학교	154 (86.52%)	24 (13.48%)	
		5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학교 밖	134 (95.71%)	6 (4.29%)	$\chi^2=0.512$ $p=.474$
			학교	173 (97.19%)	5 (2.81%)	
	또래 관계	53.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역채점)	학교 밖	66 (47.14%)	74 (52.86%)	$\chi^2=9.747$ $p=.002$
			학교	115 (64.61%)	63 (35.39%)	
		54. 본받고 싶은 성실한 친구가 있다(역채점)	학교 밖	64 (45.71%)	76 (54.29%)	$\chi^2=21.467$ $p=.000$
			학교	127 (71.35%)	51 (28.65%)	

4) 세부 내용 영역별 위험군 비율

‘성격적 강점’, ‘우울·불안’,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에서 위험군으로 추측되는 청소년의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64>과 같다. 자존감, 성실성 영역의 경우, 위험군 비율은 평균 점수보다 1.5 표준편차 아래 점수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우울·불안,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영역의 경우, 평균 점수보다 1.5 표준편차 이상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64> 세부 영역별 위험군 비율

세부 영역	문항수	318명 중 위험군 빈도	위험군 비율(%)
자존감	7	20	6.3
성실성	6	25	7.9
우울·불안	11	25	7.9
과잉행동·주의집중·행동	8	22	6.9

나. 본조사용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 분석 결과

1) 역량별 기술통계 및 문항분석

본조사 참여자의 성별 및 소속에 따른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65>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각각 44.6%와 55.4%이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53.8%와 46.2%이었다.

<표 65> 성별 및 소속 빈도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8	44.6
	여자	72	55.4
소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70	53.8
	학교	60	46.2
전체		130	100.0

본조사용 척도의 세부 영역은 ‘성격적 강점’, ‘심리·정서’, ‘환경’, ‘유능감’이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빈도는 <표 66>와 같다. ‘성격적 강점’과 ‘유능감’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심리정서’와 ‘환경’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혹은 위기로 해석된다. 따라서 ‘환경’의 세부 내용인 또래 관계에서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다’와 같은 문항(35번)에는 역채점이 적용되었다. 문항별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6> 문항별 빈도(%)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I. 성격강점	자존감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2 (1.5)	5 (3.8)	39 (30.0)	52 (40.0)	32 (24.6)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5 (3.8)	11 (8.5)	49 (37.7)	37 (28.5)	28 (21.5)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3 (2.3)	2 (1.5)	39 (30.0)	41 (31.5)	45 (34.6)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1 (0.8)	0 (0.0)	25 (19.2)	40 (30.8)	64 (49.2)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3 (2.3)	8 (6.2)	21 (16.2)	43 (33.1)	55 (42.3)
	성실성	6.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3 (2.3)	6 (4.6)	39 (30.0)	49 (37.7)	33 (25.4)
		7.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한다	4 (3.1)	11 (8.5)	44 (33.8)	43 (33.1)	28 (21.5)
		8.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6 (4.6)	21 (16.2)	34 (26.2)	36 (27.7)	33 (25.4)
II. 심리정서	우울불안	9.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29 (22.3)	37 (28.5)	24 (18.5)	25 (19.2)	15 (11.5)
		10.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21 (16.2)	46 (35.4)	27 (20.8)	25 (19.2)	11 (8.5)
		11.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43 (33.1)	44 (33.8)	19 (14.6)	14 (10.8)	10 (7.7)
		12. 나는 걱정이 많다	25 (19.2)	40 (30.8)	31 (23.8)	22 (16.9)	12 (9.2)
		13.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다	47 (36.2)	34 (26.2)	25 (19.2)	15 (11.5)	9 (6.9)
		14.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46 (35.4)	45 (34.6)	20 (15.4)	12 (9.2)	7 (5.4)
		15. 죽고 싶은 마음이다	98 (75.4)	21 (16.2)	8 (6.2)	0 (0.0)	3 (2.3)
	16. 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103 (79.2)	19 (14.6)	4 (3.1)	2 (1.5)	2 (1.5)	
과잉행동	17.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	35 (26.9)	36 (27.7)	25 (19.2)	24 (18.5)	10 (7.7)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의 집중 총동	직이게 된다					
		18.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46 (35.4)	28 (21.5)	28 (21.5)	21 (16.2)	7 (5.4)
		19.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34 (26.2)	39 (30.0)	36 (27.7)	15 (11.5)	6 (4.6)
		20.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26 (20.0)	38 (29.2)	29 (22.3)	26 (20.0)	11 (8.5)
		21. 잘 다친다	27 (20.8)	40 (30.8)	32 (24.6)	23 (17.7)	8 (6.2)
		22.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44 (33.8)	35 (26.9)	28 (21.5)	16 (12.3)	7 (5.4)
	반항·품행	23.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37 (28.5)	55 (42.3)	27 (20.8)	8 (6.2)	3 (2.3)
		24. 나는 자주 거짓말을 한다	38 (29.2)	55 (42.3)	25 (19.2)	7 (5.4)	5 (3.8)
		25.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102 (78.5)	20 (15.4)	4 (3.1)	3 (2.3)	1 (0.8)
	중독	26.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73 (56.2)	27 (20.8)	15 (11.5)	13 (10.0)	2 (1.5)
		27.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88 (67.7)	28 (21.5)	6 (4.6)	5 (3.8)	3 (2.3)
III. 환경	부모-자녀 관계	28.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종종 나를 때린다	86 (66.2)	35 (26.9)	6 (4.6)	1 (0.8)	2 (1.5)
		29.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게	65 (50.0)	39 (30.0)	18 (13.8)	7 (5.4)	1 (0.8)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리를 지른다						
		30.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107 (82.3)	18 (13.8)	3 (2.3)	1 (0.8)	1 (0.8)	
	또래 관계	31.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다: 역채점 반영(역채점)	29 (22.3)	37 (28.5)	32 (24.6)	17 (13.1)	15 (11.5)	
		32.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83 (63.8)	23 (17.7)	11 (8.5)	8 (6.2)	5 (3.8)	
	IV. 유능감	학업 효능감	33.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4 (3.1)	9 (6.9)	53 (40.8)	31 (23.8)	33 (25.4)
			34.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9 (6.9)	22 (16.9)	53 (40.8)	22 (16.9)	24 (18.5)
35. 나는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8 (6.2)	9 (6.9)	35 (26.9)	46 (35.4)	32 (24.6)	
사회적 유능감		36.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2 (1.5)	8 (6.2)	39 (30.0)	48 (36.9)	33 (25.4)	
		37.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2 (1.5)	3 (2.3)	30 (23.1)	45 (34.6)	50 (38.5)	
		38.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1 (0.8)	10 (7.7)	34 (26.2)	40 (30.8)	45 (34.6)	

본조사용 척도의 문항 평균 및 세부 내용별 변별도(즉, 문항 점수와 총점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문항 변별도의 경우 각 문항 점수와 해당 세부 내용 총점 간 상관계수로 구하였다. 문항 변별도가 0.3 이상일 경우 높은 변별도를 가진 문항으로 해석되는데, 모든 문항의 변별도가 0.3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항·품행’, ‘중독’,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세부 내용 영역의 경우 각 문항이 독립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므로 문항 변별도를 따로 구하지 않았다. <표 67>는 본조사용 척도의 세

부 내용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 변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7> 문항 평균 및 변별도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변별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 편차
I. 성격적 강점	자존감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3.82	0.90	0.82	19.67	3.64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3.55	1.04	0.76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3.95	0.96	0.75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4.28	0.83	0.75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4.07	1.02	0.76		
	성실성	6.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3.79	0.95	0.74	10.94	2.54
		7.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한다	3.62	1.01	0.85		
		8.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3.53	1.17	0.84		
II. 심리정서	우울 불안	9.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2.69	1.32	0.71	17.41	6.56
		10.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2.68	1.20	0.77		
		11.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26	1.24	0.77		
		12. 나는 걱정이 많다	2.66	1.23	0.80		
		13.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다	2.27	1.26	0.77		
		14.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2.15	1.16	0.73		
		15. 죽고 싶은 마음이다	1.38	0.80	0.64		
		16. 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1.32	0.75	0.57		
	과잉 행동 주의 집중 충동	17.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2.52	1.28	0.63	14.79	4.87
		18.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2.35	1.26	0.72		
		19.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2.38	1.13	0.74		
		20.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2.68	1.24	0.66		
		21. 잘 다친다	2.58	1.18	0.62		
		22.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얘기	2.28	1.21	0.63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변별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 편차
		를 자주 듣는다					
	반항 · 품행	23.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2.12	0.97	-	5.55	2.09
		24. 나는 자주 거짓말을 한다	2.12	1.02	-		
		25.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1.32	0.72	-		
	중독	26.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80	1.09	-	3.32	1.83
		27.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52	0.93	-		
III. 환경	부모- 자녀 관계	28.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종종 나를 때린다	1.45	0.76	-	4.45	1.92
		29.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게 소리를 지른다	1.77	0.94	-		
		30.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1.24	0.61	-		
	또래 관계	31.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다: 역채점 반영	2.63	1.28	-	4.32	1.68
32.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1.68	1.11	-			
IV. 유능감	학업 효능감	33.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3.62	1.04	0.86	10.5	2.81
		34.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23	1.14	0.89		
		35. 나는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3.65	1.11	0.81		
	사회적 유능감	36.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3.78	0.95	0.84	11.75	2.39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변별도	세부 내용 평균	표준 편차
		37.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4.06	0.92	0.86		
		38.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3.91	0.99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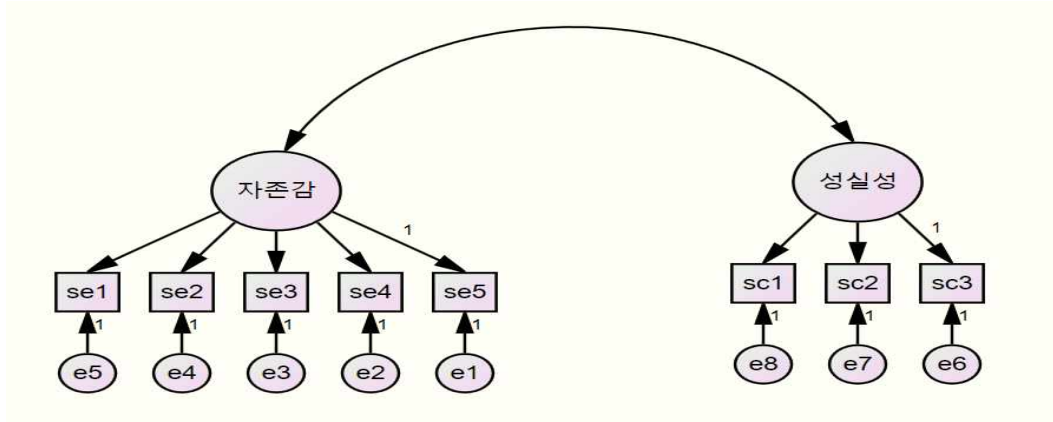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세부 내용 영역에 대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각 세부 내용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0.70 이상이었다. ‘반항·품행’, ‘중독’,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의 경우 각 문항이 독립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므로 따로 신뢰도를 구하지 않았다.

<표 68> 세부 내용 영역별 신뢰도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수	α
I. 성격적 강점	자존감	5	0.82
	성실성	3	0.73
II. 심리정서	우울 불안	8	0.87
	과잉행동 주의집중 총동	6	0.75
	반항·품행	3	-
	중독	2	-
III. 환경	부모-자녀 관계	3	-
	또래 관계	2	-
IV. 유능감	학업 효능감	3	0.82
	사회적 유능감	3	0.78

본조사용 척도의 세부 내용 영역의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확보한 데이터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요인구조가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적합성 지수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설정된 ‘성격적 강점’의 모형(그림 7)과 그 결과(표 69)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성격적 강점’ 요인분석 모형

영역별 모형 적합도 분석을 위해서 NFI, IFI, TLI, CFI, RMSEA를 적용하였다. 이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므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NFI, IFI, TLI, CFI는 0.90 이상일 경우 높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RMSEA는 추정오차의 평균으로서 관찰된 값과 모형 분산공분산 행렬의 적합도를 알려준다. 이 값이 0.10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0.05 이하이면 매우 적합한 적합도, 그리고 0.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한다.

‘성격적 강점’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69>과 같다. RMSEA는 .09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그 외의 적합도 지수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적합도를 보여 주었다.

<표 69> ‘성격적강점’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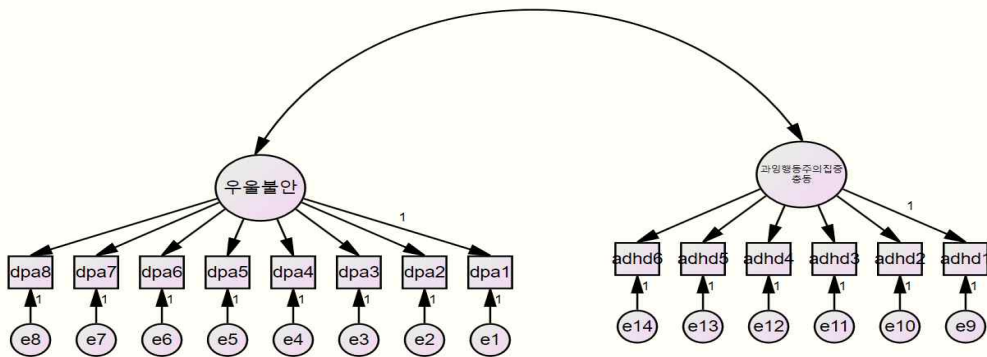
NFI	IFI	TLI	CFI	RMSEA
0.90	0.94	0.92	0.94	0.09

‘성격적 강점’의 모형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표준화계수인 B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문항의 표준화계수인 β 는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인 β 는 그 값이 0.5 이상이면,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0>은 ‘성격적강점’ 모형에서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표 70> ‘성격적강점’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세부 내용	문항번호	B	S.E.	C.R.	p	β
자존감	1	0.990	0.136	7.301	<.001	0.759
	2	1.040	0.154	6.756	<.001	0.690
	3	0.953	0.141	6.736	<.001	0.687
	4	0.819	0.112	6.723	<.001	0.686
	5	1.000				0.678
성실성	6	0.876	0.147	5.977	<.001	0.680
	7	1.604	0.165	6.432	<.001	0.777
	8	1.000				0.633

‘심리정서’의 모형은 [그림 8]와 같다.



[그림 8] 심리정서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적합도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예비조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우울·불안’에서 다소 이질적인 강박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에서 과잉행동 및 주의집중과 이질적인 충동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LI와 CFI는 0.8 이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RMSEA도 0.08 정도로 양호한 적합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Bagozzi & Yi, 2012). <표 71>는 ‘심리정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71> ‘심리정서’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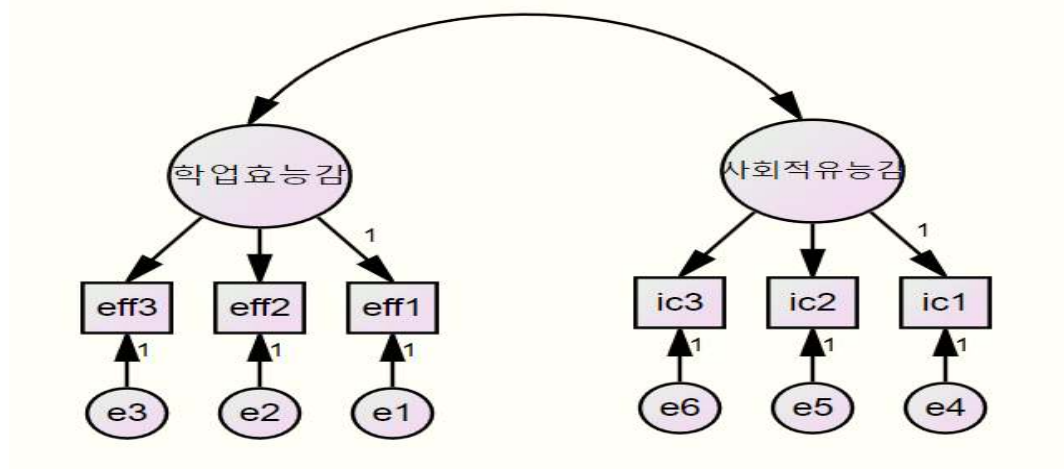
NFI	IFI	TLI	CFI	RMSEA
0.76	0.85	0.82	0.85	0.08

‘심리정서’ 모형에서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표준화계수인 B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계수인 β 도 모든 문항에서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72>은 ‘심리정서’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표 72> ‘심리정서’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하위역량	문항번호	B	S.E.	C.R.	p	β
우울·불안	9	1.000				0.632
	10	1.037	0.153	6.771	<.001	0.722
	11	1.086	0.159	6.837	<.001	0.731
	12	1.140	0.160	7.136	<.001	0.775
	13	1.110	0.161	6.890	<.001	0.739
	14	0.929	0.146	6.383	<.001	0.669
	15	0.576	0.098	5.865	<.001	0.603
	16	0.464	0.090	5.170	<.001	0.519
과잉행동· 주의집중· 충동	17	1.000				0.564
	18	1.142	0.220	5.195	<.001	0.652
	19	1.116	0.205	5.439	<.001	0.712
	20	0.911	0.201	4.539	<.001	0.530
	21	0.845	0.190	4.454	<.001	0.516
	22	0.876	0.195	4.495	<.001	0.522

‘유능감’의 모형은 [그림 9]과 같다.



[그림 9] 유능감 요인분석 모형

‘유능감’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RMSEA 추정 결과도 0.03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유능감’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73>은 ‘유능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73> ‘유능감’ 모형 적합도

NFI	IFI	TLI	CFI	RMSEA
0.97	1.00	0.99	1.00	0.03

‘유능감’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 결과, 모든 문항에서 비표준화계수인 B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표준화계수인 β 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74>는 ‘유능감’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표 74> '유능감' 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추정치

하위역량	문항번호	B	S.E.	C.R.	p	β
학업 효능감	33	1.000				0.827
	34	1.139	0.119	9.548	<.001	0.853
	35	0.837	0.113	7.384	<.001	0.646
사회적 유능감	36	1.000				0.755
	37	1.064	0.133	7.997	<.001	0.827
	38	0.895	0.133	6.710	<.001	0.646

3) 소속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심리정서 영역의 세부 내용 중 반항·품행, 중독과 환경 영역의 세부 내용인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의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산출하고, 소속에 따른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0과 1로 재분류 하였다. 예를 들면 '윗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인 '전혀 아니다', '아니다'를 비동의로 보고 0으로, 동의에 해당하는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1로 재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 23번 문항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의 문항만 소속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은 청소년의 소속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75> 소속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소속	비동의	동의	집단간 차이
II. 심리정서	반항·품행	23.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학교 밖	50 (71.43%)	20 (28.57%)	$\chi^2=7.277$ p=.007**
			학교	42 (70.00%)	18 (30.00%)	
		24. 나는 자주 거짓 말을 한다	학교 밖	48 (68.57%)	22 (31.43%)	$\chi^2=0.039$ p=.843
			학교	45 (75.00%)	15 (25.00%)	
		25.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	학교 밖	65 (92.86%)	5 (7.14%)	$\chi^2=1.327$ p=.249

세부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소속	비동의	동의	집단간 차이
		롭힌 적 있다(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학교	57 (95.00%)	3 (5.00%)	
			학교 밖	53 (75.71%)	17 (24.29%)	
	종독	26.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	47 (78.33%)	13 (21.67%)	$\chi^2=0.997$ $p=.318$
			학교 밖	63 (90.00%)	7 (10.00%)	
		27.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	53 (88.33%)	7 (11.67%)	$\chi^2=0.184$ $p=.668$
			학교 밖	63 (90.00%)	7 (10.00%)	
III. 환경	부모- 자녀 관계	28.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종종 나를 때린다	학교	58 (96.67%)	2 (3.33%)	$\chi^2=0.468$ $p=.494$
			학교 밖	63 (90.00%)	7 (10.00%)	
		29.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게 소리를 지른다	학교	44 (73.33%)	16 (26.67%)	$\chi^2=0.070$ $p=.791$
			학교 밖	60 (85.71%)	10 (14.29%)	
		30.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학교	58 (96.67%)	2 (3.33%)	$\chi^2=1.275$ $p=.259$
			학교 밖	67 (95.71%)	3 (4.29%)	
	또래 관계	31.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다: 역채점 반영	학교	38 (63.33%)	22 (36.67%)	$\chi^2=0.745$ $p=.388$
			학교 밖	28 (40.00%)	42 (60.00%)	
		32.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학교	50 (83.33%)	10 (16.67%)	$\chi^2=0.018$ $p=.894$
			학교 밖	56 (80.00%)	14 (20.00%)	

***p<.001 **p<.01 *p<.05

4) 세부 내용 영역별 위험군 비율

‘성격적 강점(자존감, 성실성)’, ‘우울·불안’,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에서 위험군으로 추측되는 청소년의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64>와 같다. 자존감, 성실성의 경우, 위험군은 해당 영역의 평균 점수보다 1.5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우울·불안,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의 경우, 평균 점수보다 1.5 표준편차 이상 높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76>는 ‘성격적 강점’, ‘우울·불안’,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에서 위험군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76> 세부 내용 영역별 위험군 비율

세부 내용	문항수	130명 중 위험군 빈도	위험군 비율(%)
자존감	5	9	6.9
성실성	3	11	8.5
우울·불안	8	7	5.4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6	7	5.4

다. 최종 문항 선정: 13세 이상 청소년용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정서·환경 척도와 자립역량 척도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심리정서·환경 척도의 경우 본조사용 척도에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다만, 지역사회 환경을 묻는 2문항(46번과 47번 문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 척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묻는 문항(48번 문항)과 척도의 결과에 따라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49번 문항)이 추가되었다. 반항·품행 영역에서 29번 문항(‘성과 관련한 경험이 있다’)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행위(예-추행, 강간 등)를 한 적 있다’로 수정되었다. 건강 및 기타 요인에서는 46번 문항(‘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과 47번 문항(‘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의 내용이 가정환경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부모-자녀 관계 요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요인을 ‘가정환경’으로 요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강과 관련한 문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로 이동시키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제거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존 문항과 새롭게 추가된 2개의 문항을 묶어서 ‘지역사회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자립역량 척도에서는 제거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없었다. <표 77>은 심리정서·환경 척도(13~24세용) 최종 문

항을 제시한 것이고 <표 78>은 자립역량 척도((13~24세용) 최종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 77> 심리정서·환경 척도(13~24세용) 최종 문항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심리정서
우울·불안	1	지난 1개월 간 나는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2	지난 1개월 간 나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3	지난 1개월 간 나는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4	지난 1개월 간 나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5	지난 1개월 간 나는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6	지난 1개월 간 나는 걱정이 많다
	7	지난 1개월 간 나는 늘 긴장이 된다
	8	지난 1개월 간 나는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9	지난 1개월 간 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10	지난 1개월 간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11	지난 1개월 간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12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13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14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15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16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17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말한다
	18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19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반항·폭행	20	윗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21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22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23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24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
	25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행위(예-추행, 강간 등)를 한 적 있다
망상·환청	26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27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28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중독	29	지난 3개월간 나는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30	지난 3개월간 나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31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32	지난 3개월간 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자살·자해	33	지난 3개월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 지난 3개월간 몇 번 자살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34	지난 3개월간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 있다 지난 3개월간 몇 번 자살을 계획해 보았습니까?	
	35	지난 3개월간 자살을 시도해 본 적 있다 지난 3개월간 몇 번 자살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36	지난 3개월간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 있다 지난 3개월간 한 달에 평균 몇 번 상처를 내었던 것 같습니까?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환경
가정환경	3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38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39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40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41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래환경	42	내게는 속마음(고민)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43	본받고 싶은 친구가 있다	
	44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왕따나 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 있다	
지역사회 환경	45	집 주변에 술 취한 사람이나 싸움을 자주 볼 수 있다.	
	46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47	우리 동네에서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남의 돈을 뺏은 것과 같은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보호요인	48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49	우리 동네에는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50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51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확인 질문	52	이 검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셨습니까?
	53	이 검사의 결과 상담이 권유된다면, 상담을 받아 볼 의향이 있습니까?

<표 78> 자립역량 척도(13~24세용) 최종 문항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성격강점
자존감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2	나는 좋은 인성을 가졌다
	3	나는 능력있는 사람이다
	4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5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성실성	8	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
	9	나는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10	어떤 일이나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한다
	11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12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유능감
학업 효능감	13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14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
	15	나는 내가 세운 학습계획을 실천한다
	16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17	나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다
	18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진로정보 탐색활동	19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다
	20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1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22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23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24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육비용 등)
사회적 유능감	25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26	나에 대한 충고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27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28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29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0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31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다

라. 최종 문항 선정: 9~12세 청소년용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없었으나 33번 문항(‘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게 소리를 지른다’)은 제거하기로 하였다. 32번 문항과 내용(학대) 중복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79>는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의 최종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표 79> 심리정서환경 척도(9~12세용) 최종 문항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심리정서
우울·불안	1	지난 한달 동안 나는 요즘 나는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2	지난 한달 동안 나는 요즘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3	지난 한달 동안 나는 요즘 나는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4	지난 한달 동안 나는 요즘 나는 여러 가지 일에 걱정이 많다
	5	지난 한달 동안 나는 요즘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다
	6	지난 한달 동안 나는 요즘 나는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7	지난 한달 동안 나는 요즘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다
	8	지난 한달 동안 나는 요즘 나는 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9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10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11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12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13	잘 다친다
	14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반항·품행	15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16	나는 자주 거짓말을 한다
	17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 (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중독	18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19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환경
부모·자녀 관계	20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종종 나를 때린다
	21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또래 관계	22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23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보호요인	24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25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고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있다
	26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확인질문	27	이 검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셨습니까?
	28	이 검사의 결과 상담이 권유된다면, 상담을 받아 볼 의향이 있습니까?

자립역량 척도(9~12세용)에서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다만, 46번 문항(‘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 ‘나는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과 47번 문항(‘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의 진술은 아동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 요인에서도 49번 문항의 진술을 수정하였다(‘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표 80> 자립역량 척도(9~12세용) 최종 문항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성격적 강점
자존감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성실성	6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7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한다
	8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세부 내용	문항	세부 영역
		유능감
학업 효능감	9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10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
	11	나는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	12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13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14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정기록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직접 자기보고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이 초안에 대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 10명의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실무자들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한 최종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V. 연구의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제작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현장 실무자들은 기존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부적절성을 얘기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하나의 척도가 추가됨으로써 현장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실무자들은 새로 만들어질 척도가 실무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며, 척도의 길이가 청소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관련 부처의 정책적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다음의 세 척도를 개발하였다.

첫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를 제작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는 ‘사례기록지’, ‘사정기록지’ 또는 ‘접수기록지’ 등의 명칭으로 이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 FGI에서 실무자들은 이런 양식을 이용하여 센터를 방문한 청소년의 정보를 직접 수집·기록하고 있지만,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무자들은 꼭 필요한 사항은 자신이 직접 물어보고, 응답을 기록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이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면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런 실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이 자기 보고할 수 있게 한 것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이다. 실무자들은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를 통해 청소년의 가족상황,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 학교를 그만둔 이유 및 이후의 계획, 현재의 어려움,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그리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정보와 이후의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실무자가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사례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자립역량척도’ 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성실성(성격적 강점), 그리고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서의 효능감(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이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센터

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이 척도를 실시하면, 앞으로 제공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의 심리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척도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더불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척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 방문 초기 측정한 청소년의 역량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향상되어 가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심리정서·환경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위기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청소년을 선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척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용하도록 제작된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대신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면접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위기 여부를 판단·평정하도록 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FGI에서 실무자들이 보고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런 방식의 척도 이용은 실무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의 타당성도 담보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척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청소년이 자기 보고하는 형태로 하였다. 이는 실무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척도의 실시 시기를 센터의 실무자와 청소년 간 최소한의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로 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진술문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민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의 위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경험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FGI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민감한 청소년은 이런 문항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센터와 실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센터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척도 실시로 인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청소년과 실무자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센터에 등록한 후, 30일-60일 정도면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척도에는 우울 및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및 부주의, 반항 및 품행 문제, 망상·환청, 약물 및 행위 중독, 자살 및 자해, 그리고 부정적인 가정, 또래, 지역사회 환경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중 ‘우울 및 불안’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부주의’는 충점을 활용하는 척도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세부 내용 영역에

서는 각각의 문항이 청소년의 위기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게 하였다(예,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에 대한 ‘그렇다’ 응답은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위기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들이 적절한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척도의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들에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GI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에게 다른 기관에서 전문적인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권유해도 주저하거나 거부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이미 관계가 형성된 센터의 담당자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자신의 문제를 다시 얘기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이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되더라도,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의뢰된 서비스 제공 기관 중 대기자가 많은 기관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지역사회통합안전망(cys-net)사업의 효율적인 작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통합안전망 사업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사회통합안전망 사업이 기대되는 바와 같이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사례관리 체계가 효율적인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척도의 결과는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 위기의 성격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기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2015, 2016), 각 지역의 자치단체(구리시, 2021; 파주시 2020)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작구, 2021) 등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환경 척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심리·정서적 경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정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위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문제 영역이 구체적으로 초점화되고, 그 효과가 분명하게 정의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구성된 두 척도는 아직 이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검증할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말하자면, 이 척도가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할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준거란 새로 구성된 척도의 세부 영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심리정서·환경 척도의 우울·불안 영역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우울·불안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이 두 범주의 청소년 중 우울·불안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면, 우울·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는 준거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준거 타당도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는 세밀한 연구설계에 따른 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된 두 척도의 준거 타당도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승규 (1994). **나를 존중하는 삶; 삶의 활력: 자기존중감**. 서울: 학지사.
-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교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민, 김동일, 안지영, 금창민, 김민지 (2016).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동민, 안지영, 금창민, 김민지 (2016).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민선 (2019).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낙관성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1029-1056.
- 김민선 (2020). **진로활동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학업효능감, 학습참여의 매개효과: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39-162.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세진, 조규필, 노자은, 이상철, 전예나, 김아람 (2020).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 청소년 중심으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영천 (2012).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작업-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45-1484.
- 김영환, 문수백, 홍상환 (2005).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은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증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 김지선, 이정애, 김보옥, 정익중 (2018). **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기술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0(2), 45-65.
- 김희진, 백혜정 (20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세종: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기호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제의 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법학**, 28(2), 27-57.

- 노영천, 유순화 (2012). 한국인용 낙관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 2175-2202.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61-86.
- 문용선, 이운형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제와 상담 방안. **교정상담학연구**, 1(1), 57-78.
- 문인오, 이영주, 이정란 (2019). 대학신입생의 강점 활용 및 자아탄력성이 대학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351-358.
- 박근수, 김민 (2016).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청소년의 건강실태 비교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2), 17-26.
- 박성희 (2006). 노년기부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년기부부의 학습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31, 161-179.
- 박영순, 김관희 (2015). 중학생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3(4), 129-149.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설지원, 김근영 (2015). “AMPQ-II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른 학교 상담의 효과: 상담자 요인 및 회기 수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978-986.
- 손경원, 이인재 (2009). 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 **윤리교육연구**, 19, 169-199.
- 여성가족부 (2021).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 **2022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윤철경, 최인재, 김강호, 유성렬, 김태화, 손희정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래혁, 장혜림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방임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3, 155-180.
- 이우경, 이원혜 (2015). **심리평가의 최신 흐름**. 서울: 학지사.
- 이자형 (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진로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11(1), 107-130.
- 정복희 (2014).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성격강점 및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학교 부적응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4), 7-16.
- 정세환 (2019). 중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의 매개효과. **교육행정학연구**, 37(4), 59-85.
- 정승철, 최은실 (2016). 성격 5요인검사 BFI 전문가용 매뉴얼. 경기: 한국가이던스.

- 정연순, 이민경 (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35(1), 79-102.
- 정은미, 유형근, 조용선 (2012). 중도탈락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연구*, 25(4), 93-115.
- 조규필 (2013).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필, 김세진, 노자은, 이상철, 전예나, 김아람 (2021). 청소년 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대상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9(1), 129-151.
- 조문희 (2012).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순 (2004).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이 편모가정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효과. *동서정신과학*, 7, 85-105.
- 채경선, 박미경 (2019).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자기조절력 향상 프로그램: 긍정적 자아개념을 기반으로.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6(2), 269-282.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 최효식, 연은모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방임, 심리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간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83-98.
-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202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민숙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황연경, 홍은영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행복감 관련 변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6(2), 57-64.
- Bagozzi, R. P., & Yi, Y. (2012). Specification,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1), 8-34.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91-1008.
- Costa, P. T., & McCrae, R. R. (1992).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its relevance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4), 343-359.
- Crespo-Molero, F. & Sánchez-Romero, C. (2021). The repercussion of severe mental disorder at school: early school dropout. *Culture and Education*, 33(1), 134-159.

- Esch, P., Bocquet, V., Pull, C., Couffignal, S., Lehnert, T., Graas, M., Fond-Harmant, L., & Anseau, M. (2014). *The downward spiral of mental disorders and educational attainment: a systematic review on early school leaving*. BMC Psychiatry, published online, <http://www.biomedcentral.com/1471-244X/14/237>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rd ed). Sage Publications.
- Merrell, K. W. (1993). Using behavior rating scales to assess social skills and antisocial behavior in school settings: Development of the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22(1), 115-133.
- Roberts, B. W., & Robins, R. W. (2000). Broad dispositions, broad aspirations: The intersection of personality traits and major life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0), 1284-1296.
- Rubin, K. H., & Barstead, M.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A commentary. *Sex roles*, 70(7), 274-284.

부 록

1. (심리정서·환경) 13세 이상 청소년용 심리정서·환경 척도
 2. (성격강점 자립역량) 13세 이상 청소년용 자립역량 척도
 3. (심리정서·환경) 9~12세 청소년용 심리정서·환경 척도
 4. (성격강점 자립역량) 9~12세 청소년용 자립역량 척도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 서비스 조사표
-

심리정서·환경 척도 (13~24세용)

날짜	(년 월 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I. 심리정서

※ 다음은 귀하의 심리정서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우울·불안						
• 지난 1개월간 나는 _____						
1	슬프거나 우울할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①	②	③	④	⑤
5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늘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평소 쉽게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원하지 않는 생각(예, 병균 감염, 화재 등)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예, 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을 반복하게 되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12	주위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물건이나 소지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7	남들은 내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하고야 만다	①	②	③	④	⑤
■ 반항·품행						
20	윗사람이 뭐라 하면, 참지 않고 말다툼을 벌인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신체에 해를 입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행위(예-추행, 강간 등)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망상·환청						
26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누군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8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예, 비명, 내 행동을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등)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중독						
• 지난 3개월간 나는 _____						
29	음주 및 흡연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온라인 게임 및 도박의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 문제로 타인(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자살·자해						
• 지난 3개월간 나는 _____						
33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몇 번 자살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회)				
34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체적으로 몇 번 자살을 계획해 보았습니까?	(회)				
35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몇 번 자살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회)				
36	자살 의도 없이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 달에 평균 몇 번 상처를 내었던 것 같습니까?	① 월 1회-4회	② 월 5회-8회	③ 월 9회-12 회	④ 월 12회-15 회	⑤ 월 16회 이상

III. 환경

※ 다음은 귀하의 환경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가정 환경						
37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8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9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사소한 잘못에도 참지 못하고 나를 심하게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40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자주 심하게 다투신다	①	②	③	④	⑤
41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또래 환경						
42	내게는 속마음(고민)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본받고 싶은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친구 또는 선배로부터 왕따나 따돌림 피해를 받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지역사회 환경						
45	집 주변에 술 취한 사람이나 싸움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우리 동네에서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남의 돈을 뺏는 것과 같은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 보호요인						
48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9	우리 동네에는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0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1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확인 질문						
52	이 검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 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3	이 검사의 결과 상담이 권유된다면, 상담을 받아 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첨부 2> (성격강점 자립역량) 13세 이상 청소년용 자립역량 척도

자립역량 척도 (13~24세용)

날짜	(년 월 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I. 성격강점

※ 다음은 귀하의 성격강점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자존감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인성을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능력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낼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성실성						
8	나는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을 할 때 꾸준히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일이나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무엇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유 능 감

※ 다음은 귀하의 자립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학업효능감						
13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세운 학습계획을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습한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진로정보탐색활동						
19	내가 원하는 미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알고 있다 (예, 등록금,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육비용 등)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 유능감						
25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에 대한 충고를 기꺼이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대인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타인의 요청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심리정서·환경 척도 (9~12세용)

날짜	(년 월 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II. 심리정서

※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우울·불안						
• 지난 한달 동안 나는 _____						
1	요즘 나는 잠을 충분히 자도 하루 내내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요즘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요즘 나는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요즘 나는 여러 가지 일에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요즘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 나는 이유 없이 머리나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요즘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요즘 나는 내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9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3	잘 다친다	①	②	③	④	⑤
14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 반항·품행						
15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자주 거짓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보다 약한 친구나 동물을 괴롭힌 적 있다 (예, 개, 고양이를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함 등)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중독						
• 지난 3개월간 나는 _____						
18	스마트폰(예, 유튜브, SNS) 사용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온라인 게임 문제로 다른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환경

※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부모-자녀관계						
20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종종 나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21	부모님(또는 나를 돌보는 사람)은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또래관계						
22	내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예, 욕을 하고, 때렸거나 때릴 것이라고 말한다 등)	①	②	③	④	⑤
■ 보호요인						
24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고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확인 질문						

27	이 검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 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8	이 검사의 결과 상담이 권유된다면, 상담을 받아 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첨부 4> (성격강점 자립역량) 9~12세 청소년용 자립역량 척도

자립역량 척도 (9~12세용)

날짜	(년 월 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I. 성격강점

※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자존감						
1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성실성						
6	나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유능감

※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 주세요.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학업효능감						
9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유능감						
12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친구 및 선후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알게된 경로 <input type="checkbox"/> TV광고 <input type="checkbox"/> 라디오광고 <input type="checkbox"/> 편의점·마트광고 <input type="checkbox"/> PC방광고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광고 <input type="checkbox"/> 홍보물(리플렛등) <input type="checkbox"/> 아웃리치 <input type="checkbox"/> SNS <input type="checkbox"/> 메타버스(스마트 꿈드림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input type="checkbox"/> 경찰서(지구대 포함)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도청, 시청, 군청, 주민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상담복지센터(YC, 또래상담자, 1388전화, 117센터, 1388 청소년지원단 등)
	<input type="checkbox"/> 학교 <input type="checkbox"/> 대안학교 <input type="checkbox"/> 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기관)
	<input type="checkbox"/> 법무부(법원, 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법조인
	<input type="checkbox"/> 보호관찰소 <input type="checkbox"/> 소년원 <input type="checkbox"/> 검찰청 <input type="checkbox"/> 미혼모시설
	<input type="checkbox"/> 쉼터 및 그룹홈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군부대 <input type="checkbox"/> 검정고시학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PC방, 노래방, 병원 및 약국, 찜질방, 편의점, 택시 등)
	<input type="checkbox"/> 자활지원관 및 지역아동센터(방과후아카데미)
	<input type="checkbox"/>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성폭력가정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1366해바라기아동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타 상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민간상담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타 꿈드림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1. 나의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명	관계	연령	연락처	동거구분

1-1. 현재 가정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중복가능)

- 이혼 미혼부/모가정 재혼가정 북한이탈가정
 다문화 가정 중도입국 가정 해당사항 없음

1-2. 현재 가족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친부모 편부 편모 친부+계모 계부+친모 조부/조모
 친척 형제 위탁부모 보호시설 기타

1-3. 현재 가정의 경제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자활특례
 차상위 해당없음

2. 가정(부모님 또는 보호자)에서 물질적 지원(용돈, 학원비, 책값, 통신비, 옷 등)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⑥ 기타 ()

2-1. 가정에서 받는 물질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 ①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해서 충당함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③ 생활비용(용돈)이 충분하지 않지만 아껴 씀 ④ 기타 ()

2-2. 한 달 생활비용(용돈)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월 10만원 미만 ③ 월 10~20만원
 ④ 월 21~30만원 ⑤ 월 30만원 이상

가족 관계

3. 가정(부모님 또는 보호자)에서는 얼마나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⑥ 기타 ()

4.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주로 얘기합니까?

- ① 아버지나 어머니 ② 선생님 ③ 형제 또는 자매
 ④ 친척(사촌, 이모, 삼촌 등) ⑤ 고민을 나누지 않음 ⑥ 친구/선후배
 ⑦ 기타 ()

어려움

1.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가족 및 관계	① 가족과의 갈등	② (나를 돌봐 줄) 보호자가 없음
	③ 또래(친구, 선후배 등)와의 갈등	④ 이성 관계 문제(갈등, 성 문제 등)
	⑤ 가족 돌봄	
미래 준비	⑥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	⑦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
	⑧ 미래에 대한 불안감	⑨ 학습의 어려움
건강 및 심리	⑩ 우울감 및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 문제	⑪ 신체적인 건강 문제
	⑫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생활 여건	⑬ 경제적 어려움	⑭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음
	⑮ 취업하기가 어려움	⑯ 근로 현장(직장)에서의 어려움
기타	()	

개인별 목표

4. 학교를 그만둔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매겨 3순위까지 제시해 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학업복귀	① 검정고시 ② 유학 ③ 대안학교 ④ 상급학교 진학(중, 고) ⑤ 대학진학
사회진입	⑥ 자영업 ⑦ 직업 교육훈련 ⑧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⑨ 창업
진로미결정	⑩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함 ⑪ 기타()

서비스 수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해당 칸에 V표 해 주세요.

진로 및 학습 지원	<input type="checkbox"/> 심리검사 및 해석(성격, 적성, 흥미, 지능 등)
	<input type="checkbox"/> 진로상담 및 심리정서상담
	<input type="checkbox"/> 학습지원(검정고시, 수학능력시험 준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 등)
	<input type="checkbox"/> 진학정보제공(검정고시, 고교입시 정보, 대학입시 정보, 대안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진로 체험 활동(요리사, 미용사, 프로그래머 등)
	<input type="checkbox"/> 멘토와 멘토링(학습 및 진로에 도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자리 및 자립지원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정보(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직장체험
	<input type="checkbox"/>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input type="checkbox"/> 창업지원(창업체험 및 훈련, 전문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식생활 및 급식지원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동 기회 및 경제적지원	<input type="checkbox"/> 숙식 등 기초생활 지원, 보호, 법률지원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악기, 미술, 공예, 댄스 등), 여행·캠프·야외 활동, 동아리 활동 등
	<input type="checkbox"/> 모임, 놀이, 휴식 등을 위한 활동 공간
	<input type="checkbox"/> 경제적지원(장학금, 학원비, 생활비보조, 의료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초소양교육 및 권리지원	<input type="checkbox"/> 권리교육(인권, 근로 권익, 선거권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안전교육(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심폐소생술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경제·금융교육(돈관리 및 금융·경제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보건교육(성교육, 금연교육, 건강교육, 약물남용 예방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인성·사회성교육(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법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교육(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도박문제예방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1. 현재 문제상태 확인

현재 문제상태	<input type="checkbox"/> 가출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피해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가해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피해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가해	<input type="checkbox"/> 성매매	<input type="checkbox"/> 임신/낙태	<input type="checkbox"/> 성폭력-피해
	<input type="checkbox"/> 성폭력-가해	<input type="checkbox"/> 약물과다-음주	<input type="checkbox"/> 약물과다-흡연	<input type="checkbox"/> 자살준비 및 시도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input type="checkbox"/> 은둔형 부적응	<input type="checkbox"/> 보호관찰	
	<input type="checkbox"/> 범법	<input type="checkbox"/> 사이버폭력-피해	<input type="checkbox"/> 사이버폭력-가해	<input type="checkbox"/> 도박중독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문제			

2. 아동학대 위기상황 확인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가정 폭력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내담자가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아동 학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손이나 도구 등으로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가정에서 보호자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헐박, 모욕을 주는 말을 자주 한다.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한다.			

Abstract

The number of teenagers leaving school every year is estimated to be about 30,000 to 50,000 nationwide and is currently estimated to be about 146,000 in total. As these adolescents are out of the safety fence of the school society, they are exposed to various risk factors that pose a threat to growing into healthy members of society. On the other hand, some teenagers have left school but have not stopped studying and are still continuing their studies, and some teenagers go on a different path from their studies. No matter what path adolescents take, society needs to identify and support their needs so that they can grow healthy. One effort to do this may be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life goals of out-of-school youth, and to provide the support they need.

One way to do this will be to provide tool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xperienc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adolescents outside of school. Such a tool should be able to grasp not only the psychological, emotional, and behavioral crises experienced by adolescents, but also the crises that can be experienced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communities. This is because adolescent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rely on environmental contexts for much of their live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tool that can evaluate such psychology, emotion, and environment for out-of-school youth.

For this purpose, first, a focus group interview (hereinafter referred to as FGI) was conducted for practitioners of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practitioners said that the existing crisis screening scales measure only the negative aspects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t was also reported that it may be difficult for practitioners who have not received counseling training to perform the existing scale skillfully. Moreover, it was also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because there are many expressions that sensitive adolescents may have a sense of rejection, and term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Therefore, practitioners said that a tool that can measure the positive aspects is needed, and this tool needs to be evaluated in a way that teenagers self-report.

In consideration of these demands of field practitioners, a preliminary scale with a total of 96 questions was formed, and after consulting with the practitioners, the preliminary scale questions on the 9-12 and 13-24 age scales were confirmed. The specific areas of the preliminary scale for those aged 13 to 24 were personality strengths (self-esteem, optimism, self-conscientiousness), depression · anxiety, ADHD, conduct disorder, suicide, self-harm, addic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competence (academic efficacy, career information activity, interpersonal efficacy). The detailed areas of the preliminary scale for the ages of 9 to 12 are the same as those for the ages of 13 to 24, but the areas of suicide, self-harm and career information activities were not included.

A confirmed preliminary scale was performed on 93 elementary students in a school in Seoul and 79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gi-do. respectively, and analyzed the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ems with a load amount of less than .4 for one factor or a cross-load amount of less than .1 for the two factors were removed. At this time, the questions deemed essential in the nature of the job to be measured were maintained as questions for the main measurement despite the problem of factor load.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minimize the questions asking too negative matters, in particular, among the questions i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area, questions that were judged to have negative content and overlap in meaning were removed. As a result, 78 questions for 13-24 years old and 38 questions for 9-12 years old were selected as scale questions for the main scale.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on out-of-school youth (70 people aged 9-12 and 140 people aged 13-24) an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60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17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country,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iability of each detail in both the 9-12-year-old scale and the 13-24-year-old scale for this survey appeared to be more than 0.7.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oth the model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estion and the latent factor showed good goodness of fit. And in each model, it was found that all items were appropriately loaded with latent factors. Based on this result, it was decided to keep any of the scale items for this survey as the final scale item without removing them. However, among the questions on this survey scale, it was revised if it was deemed inappropriate or ambiguous. In addition, 1 peer

relationship question and 2 community environment questions were added to balance the number of questions by detailed content area, and 2 questions from etcetera section factors were combined with 3 questions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rea to be named family environment factors. Other questions about physical health were deleted from this scale. This is because information on this can be obtained at the time of reception (through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 Survey Table'. In addition, it was decided to add four questions regarding the protective factor. In this way, the questions on the 9-12-year-old scale and the questions on the 13-24-year-old scale were confirmed as the final scale.

However, the personality strengths and competence areas were combined into one scale in that (1) it can be important information when designing services for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2) it provides information to track the effects of services, and (3) it can reduce the burden of the heavy paper load on teenagers and practitioners. The name of this scale was called the Core Competencies Scale for the productive use of services. In addition, the name of the scale composed of the remaining areas was called the 'Adolescent at risk Screening Tool'. The "Core Competencies Scale for productive use of services" was to be implemented when teenagers first visit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and the "Adolescent at risk Screening Tool" was to be implemented within 60 days after visiting the center.

Finally, it was intended to organize an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 Survey Table' that can be easily used by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 Survey Table" was produced based on the opinion that it is more efficient for teenagers to present their information first and then for practitioners to collect additional information than for practitioners to directly collect and record information.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 Survey Table" allows adolescents to self-report, but is organized so that information necessary for service design can be collected extensively. The information areas included in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 Survey Table are the family situation of adolescents, school life before leaving school, reasons and plans for quitting school, current difficulti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types of services needed. The center's practitioners can collect additi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youth's response to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 Survey Table, and obtain the results of the “Core Competencies Scale for productive use of services“ and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plan services to provide to the youth.

The two scale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and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 Survey Table will help identify youth needs and collect information necessary for service design at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It will also help to detect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of out-of-school youth early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ddition, the information accumulated using the two measures and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ervice Survey Table will help come up with policy measures to help out-of-school youth grow and develop healthily even if they leave the school fence.